

발간등록번호
11-B553457-000006-14




100문 100답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써봤나요?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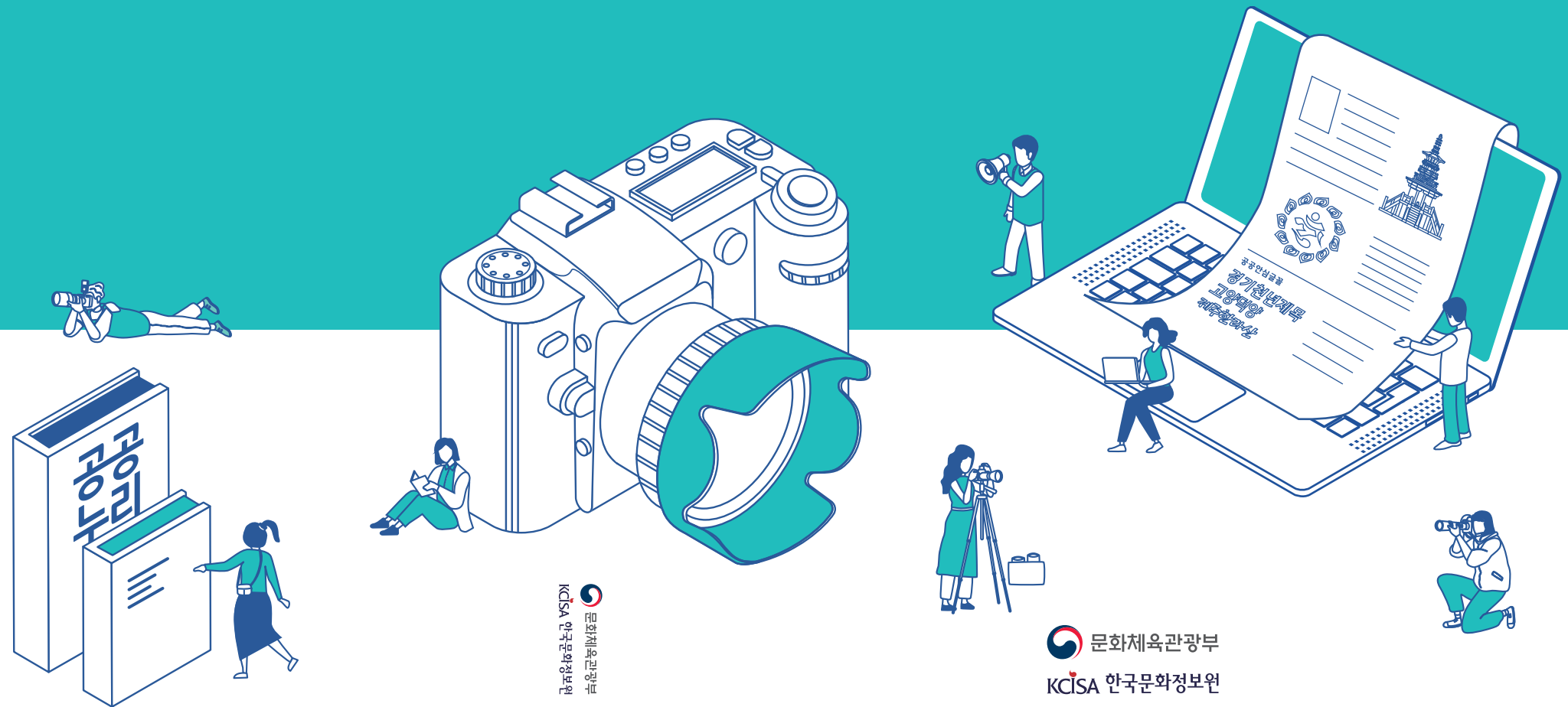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써봤나요?

공공누리 이용자 상담 및 활용 사례집


100문 100답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써봤나요?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비매품/무료
13060
9 791196 664510
ISBN 979-11-966645-1-0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KCISA 한국문화정보원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공공저작물 100문 100답 어디까지 써봤나요?

공공누리 이용자 상담 및 활용 사례집



100문 100답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써봤나요?

공공누리 이용자 상담 및 활용 사례집

기획
김현주, 김효은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부)

편집디자인·인쇄
디에이지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발행일
2021년 12월 초판 발행

www.koghl.or.kr

본 사례집에 수록된 공공저작물 상담 사례의 법리 적용 및 결론 등은 세부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디지털을 기반으로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플랫폼과 채널을 넘나들며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고, 콘텐츠를 제작하며, 사업을 진행합니다. 온·오프라인 융합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목적의 커뮤니케이션이 콘텐츠를 통해 이루어지기에,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저작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더욱 필요해졌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민에게 개방한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은 저작권 침해의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한 콘텐츠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인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확인해 조건에 맞게 이용하면 됩니다.

본 사례집에는 공공누리 누리집에 게시된 이용자들의 상담 사례와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기업들의 활용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공공저작물을 찾아 마음껏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한국문화정보원 원장 **홍희경**

CONTENTS

Part 1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란?

공공누리

12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유형

13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

16

Part 2

만화로 알아보는 공공저작물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제도

24

공공누리 4가지 유형

28

출처표시

32

신탁저작물

36

변형 및 상업적 이용

40

Part 3

공공누리 이용자를 위한 Q&A 가이드

공공누리 제도 및 공공누리 사이트

Q01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면 저작권재산권의 소유와 관계없이 공공저작물인가요?

46

Q02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에는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할 수 없나요?

47

Q03 공공기관의 외국어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48

Q04 누리집 메인 화면에 공공누리 표시가 되어 있으면 해당 기관 저작물은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면 되나요?

49

Q05 공공누리 유형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50

Q06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다면 상표권이 등록된 캐릭터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51

Q07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검색 후 클릭하면 오류가 납니다.

52

Q08 공공누리 사이트에 표시된 유형과 원문 사이트의 유형이 다릅니다.

53

Q09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54

카드뉴스 1 공공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56

공공저작물 일반

Q10 지자체 로고, CI, 엠블럼, 마스코트를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요?

58

Q11 공공기관 로고를 사용해 회사의 사업 수행 경력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59

Q12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일부 변형해 교재에 쓰려고 합니다.

60

Q13 공공누리 마크가 있다면 어문자료에 포함된 사진도 사용 가능한가요?

62

Q14 공공기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63

Q15 기관 누리집 지도도 자유이용 대상인가요?

64

Q16 공공기관에서 용역을 받아 진행한 연구를 참여 교수님의 논문 작성을 위해 이용할 수 있나요?

66

Q17 해외 공공저작물을 보유 기관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67

Q18 저작권 확보가 안 된 자료를 강의용 교재 제작에 사용할 수 있나요?

68

Q19 공공기관의 영상을 수업에 사용해도 되나요?

69

Q20 외부 강사가 참여한 저작물은 교육기관 외에 다른 곳에서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70

Q21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는 저작물을 상업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71

Q22 정부 부처에서 작성한 해외 언론 번역물은 공공저작물인가요?

72

Q23 공공누리 마크가 없다면 개인이 출판하는 책에 삽입할 수 없나요?

73

Q24 거리의 조형물을 촬영해 상업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74

Q25 세종대왕 동상 촬영본에 CG를 넣어 변형해 사용할 수 있나요?

75

Q26 KOGL 폰트와 OFL 폰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76

Q27 저작권이 만료된 고문헌의 디지털본을 사용한다면 저작권 문제는 없는 건가요?

77

CONTENTS

Q28	안심글꼴을 이용해 제작한 로고를 상표등록해도 되나요?	78	Q51	제4유형의 영상 두 편을 수정 없이 붙여서 편집해도 될까요?	98
Q29	기관이 제작했다면 연예인이 출연한 캠페인 송을 자유이용해도 되나요?	79	Q52	제4유형의 기관 공지 사항을 모아 지역 주민에게 이메일로 전송하려고 합니다.	99
Q30	EBS 콘텐츠는 공공저작물이 아닌가요?	80	Q53	제4유형의 사진을 비영리 전시에 활용하려고 합니다.	100
카드뉴스 2	공공저작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	82	카드뉴스 3	환경의 날 무료 이미지 추천	102
유형별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Q31	제1유형 안심글꼴을 변형해 C로 사용해도 되나요?	84	Q54	전자책 발행시 이미지별 출처표시를 페이지 마지막에 해도 되나요?	104
Q32	제1유형이라면 해외 출판도 할 수 있나요?	84	Q55	공공누리 사진을 비상업적 영상에 사용할 때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105
Q33	제1유형 데이터로 컴퓨터프로그램을 만들어 사람들이 사용하게 한다면 제1유형 표기를 해야 하나요?	85	Q56	출처표시를 예시대로 길게 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106
Q34	제1유형 저작물로 디자인을 해 제품을 판매해도 되나요?	86	Q57	기관 보유 사진에 대해 원작자 동의를 얻어 개방할 경우 기관과 원작자 중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8
Q35	제2유형 저작물을 회사 홍보자료로 무료 배포해도 되나요?	87	Q58	공공저작물을 간판이나 명함에 사용할 경우는 어디에 출처를 표시하나요?	109
Q36	제2유형의 음원을 대회 출품 영상자료에 활용해도 되나요?	88	Q59	방송 드라마에 소품으로 사용할 때 출처표시는 엔딩크레디트에 하면 되나요?	110
Q37	제2유형 데이터를 활용해 영상을 제작한 후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89	Q60	가죽공예 제품에 단청 무늬 저작물을 사용하려면 어디에 출처를 표시하나요?	110
Q38	제3유형 저작물을 활용해 출판을 하려고 하는데, 표지에 우리 회사 로고를 넣어도 되나요?	90	Q61	공모전 포스터 부문에 공공누리 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표시가 궁금합니다.	111
Q39	제3유형 저작물로 책을 만들 때 원저작물의 글은 빼고 그림만을 사용할 수 있나요?	91	Q62	차량용 외부 스티커를 공공저작물로 제작할 때 어디에 출처를 표시하나요?	112
Q40	제3유형 자료를 변형하지 않고 출판해도 되나요?	91	Q63	영상에 다량의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때 출처는 어떻게 표시하나요?	113
Q41	제4유형 포스터를 회사 로고와 함께 부착해도 되나요?	92	Q64	공연할 때 공공누리 음원을 사용하면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나요?	113
Q42	제4유형 저작물의 글을 발췌해 영상에 사용해도 되나요?	92	Q65	웹페이지 배너에 공공저작물을 사용하면 배너 안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114
Q43	제4유형 저작물을 링크로 연결해 회사 누리집에 사용할 수 있나요?	93	Q66	안심글꼴로 C를 만들어 판매하면 출처표기를 어떻게 하나요?	115
Q44	제4유형 저작물을 직원들의 교육자료로 사용해도 되나요?	94	Q67	공공누리 국악음원으로 디지털 앨범을 발매할 때 음원 출처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115
Q45	제4유형 저작물을 제본해 개인 학습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합니다.	95	Q68	공공저작물을 인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할 때도 출처를 표시하나요?	116
Q46	제4유형 저작물을 블로그에 사용해도 되나요?	95	Q69	공공누리 제1유형 유물 사진을 사용할 때 출처표시 문구 예시를 알려주세요.	117
Q47	제4유형 영상을 교과서에 영상으로 일부 사용하고 싶습니다.	96	카드뉴스 4	PD님! 작가님! 팩트 체크하셨나요?	118
Q48	제4유형 포스터를 가게 앞에 부착해도 되나요?	97	상업적 이용		
Q49	제4유형은 저작자가 동의해도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불가능한가요?	97	Q70	대학교 누리집에 제2유형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120
Q50	제4유형 사진을 비영리단체에서 발행하는 책자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98			

CONTENTS

Q71 제2유형 사진을 무가신문에 넣어도 되나요?	120
Q72 제3유형 사진을 개인 유튜브 영상에 쓰려고 합니다.	121
Q73 제4유형 사진을 회사 SNS에 써도 되나요?	122
Q74 상업적 활용 금지는 저작물의 판매 금지 외에 2차적 저작물 활용 금지도 포함되나요?	123
Q75 학교 시험문제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나요?	124
Q76 저작권이 만료된 훈민정음 언해본 내용을 활용한 상품을 제작해 판매할 수 있나요?	126
Q77 상업적 이용이란 실제 이익을 취하게 될 때 저촉되는 건가요?	126
Q78 교육부 배포자료를 인용해 유아교육 도서를 출판해도 되나요?	127
Q79 블로그에 사용하는 것이 왜 상업적 이용인가요?	128
Q80 상업적 이용금지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129
카드뉴스 5 패턴, 문양 무료 다운로드 사이트 추천	130

변형

Q81 제1유형 공공저작물의 색을 보정한 후 누리집에 게시할 수 있나요?	132
Q82 제3유형 서체라면 기울임, 자간까지 변형하면 안 되나요?	133
Q83 제3유형의 사진을 크롭트, 보정, 파일명 변경 등을 할 수 있나요?	134
Q84 제4유형 교육자료의 일부 슬라이드를 삭제해 회사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135
Q85 영상에 공공누리 사진을 첨부하면 변형하는 건가요?	136
Q86 제4유형 데이터를 일부만 활용해 다른 지표와 함께 보여줘도 되나요?	137
Q87 공공저작물을 요약해 사용하면 2차 저작물이 되는 건가요?	137
Q88 제4유형 데이터를 일부만 캡처해서 사용할 수 있나요?	138
Q89 제4유형 저작물을 카드뉴스에 사용할 수 없나요?	138
Q90 제4유형 저작물을 재발간할 때 다른 기관의 이름을 추가하려고 합니다.	139
Q91 디지털 그림 저작물의 일부만 사용하거나 그림체를 바꿔 쓸 수 있나요?	140
Q92 공공누리 자료를 녹음해 데이터로 만들면 변형인가요?	141
카드뉴스 6 안심하고 무료로 사용하는 손글씨 글꼴 5종 추천	142

위반

Q93 이용조건을 무시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144
Q94 기관의 저작물인데 출판사가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채 출판해 배포했습니다.	145

카드뉴스 7 의병들의 발자취 임진왜란 3대 대첩	146
----------------------------	-----

일반 저작권

Q95 책 표지나 영화 포스터를 활용해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148
Q96 영화나 드라마 영상의 클립을 교육자료에 포함시켜도 되나요?	149
Q97 도서관을 이용할 때 자료를 복사, 스캔하는 건 괜찮은가요?	150
Q98 저작물 내용 중 인용이 허용되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152
Q99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10초 정도 삽입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154
Q100 가수의 옛 앨범 재킷을 활용해 포스터를 만들어도 되나요?	155

Part 4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사례

에쉬	안심글꼴과 전통 문양을 활용해 패션 제품 개발	158
라돈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오감 체험 키트 제작	159
뷰티드앤코	고궁 사진과 전통 문양을 응용한 손수건 제작	160
캠버	관광지를 담은 사진으로 여행 지도 키트용 콘텐츠 개발	161
맘모식스	전통 문양과 건축물의 사진을 VR 리소스로 사용	162
나인투식스	주요 도시 사진 저작물과 안심글꼴을 이용, 기능성 깔창과 걷기 관련 콘텐츠 제작	163
청세	안심글꼴을 활용해 모바일 앱 개발	164
뷰티메이커스	동백꽃 사진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로 제품 패키지 제작	165
얼리어답터	웹 콘텐츠 제작 시스템(CMS)에 안심글꼴 적용	166
M.O.P.	전통 문양 이미지를 3D 프린트해 조명기기 제작	167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사진, 영상 및 음원 등을 무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아시나요?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저작물을 검색해 보유 기관 누리집으로 이동하고,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한 후 사용하면 됩니다.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누리는 공공누리 제도를 마음껏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① 공공누리	12
②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유형	13
③ 공공저작물 이용 방법	16

1. 공공누리

공공누리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KOGL,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을 의미하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개방한 공공저작물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된 저작물은 개별적인 이용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유형별 이용 조건에 따라 저작권 침해 부담 없이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공공누리는 왜 도입됐을까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저작물은 그 양이 방대하고 품질이 좋으며 정보가 정확해 민간 영역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된다면 경제적·문화적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합니다. 스마트기기 등 새로운 매체의 확산과 함께 공공저작물을 원천 소재로 활용하여 새로운 콘텐츠나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는 민간기업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공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 절차의 부재, 저작권 권리 처리 문제 등 활용의 어려움을 없애고자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표준화된 이용허락 표시제도 '공공누리'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2.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 유형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 ① 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연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공공누리 유형 및 조건

제1유형	출처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2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제3유형	출처표시 + 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출처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용조건에 따라 활용하세요



상업적 이용금지의 의미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는 물론, 이에 수반되는 모든 활동에서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하여 제품을 만드는 것과 더불어 기업의 로고, 간판, 홍보물을 만드는 행위 또한 상업적 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변경금지의 의미

해당 공공저작물을 바탕으로 한 2차적 저작물 작성을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저작권법 제5조)

알아두세요!

이용조건을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을 개방한 기관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이나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표시는 언제나 기입하세요!

공공누리의 4가지 유형 모두 출처표시가 사용의 필수 조건입니다.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따른 출처표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사이트 게시판, 블로그 등)이라면

[추천 1]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000)”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000(기관명), 000(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작성:공공저작물부)”으로,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www.kogl.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천 2] 출처: 기관명(누리집 주소 또는 저작물 출처 링크),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2/3/4]유형, 발행 연도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21

[추천 3] 출처: 기관명(누리집 주소)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www.kcisa.kr)

오프라인(교재, 전단지 등)

[추천 1] 본 저작물은 000(기관명)에서 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2/3/4]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000)”을 이용하였습니다.

예시) 본 저작물은 한국문화정보원에서 2021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공공저작물 상담 및 활용 사례집(작성:공공저작물부)”을 이용하였습니다.

[추천 2] 출처: 기관명, 저작물명, 공공누리 제[1/2/3/4]유형, 발행 연도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정보 이슈리포트”, 공공누리 제1유형, 2021

[추천 3] 출처: 기관명

예시) 출처: 한국문화정보원

[추천 4] 통상의 방법으로 출처표시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쉽게 인식 가능한 곳에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예시) 영상: 엔딩크레디트나 영상 설명 페이지 등 눈에 띄는 곳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예시) 그릇: 제품 자체에 직접 표시가 어렵기 때문에 제품의 포장지, 누리집의 제품 설명 페이지 등에 출처를 표시합니다.

유의하세요

- 가급적 출처는 자세히 적어주세요.
-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각 기관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또는 실무 담당자에게 문의 후 사용해주세요.
-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온라인에서는 가능하다면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공공저작물 이용방법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1,900만 건 이상의 공공저작물과 연계되어 있는 공공누리 누리집을 통하는 것과 각 기관의 사이트 내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게시물을 직접 찾아 이용하는 것입니다.

1. 공공누리(<https://www.kogl.or.kr>) 누리집을 통해 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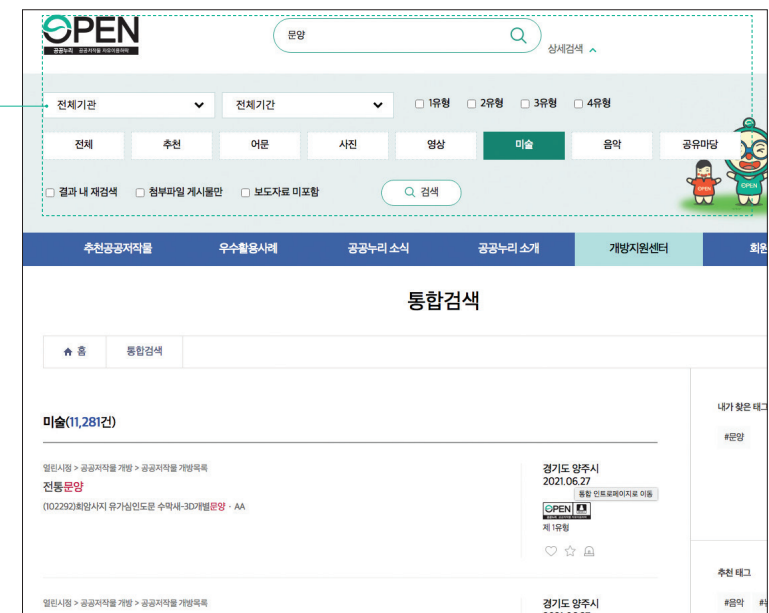
공공누리 사이트를 방문해 검색창에 원하는 저작물을 검색해보세요. 공공누리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연결되거나 원문을 제공하는 각 기관의 해당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저작물 및 이용조건을 확인한 후 내려받아 활용하시면 됩니다.

공공누리 누리집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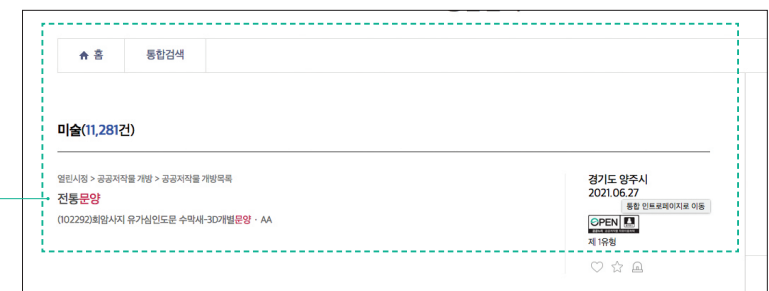
공공누리 저작물 검색

검색어 및
검색 상세 조건 입력



해당 저작물 링크를 통해 저작물 확인

저작물 제목 클릭



저작물에 적용된 공공누리 유형 및 이용조건 확인

문양설명

덩굴은 겨우살이 풀로 거울을 건더낼 뿐만 아니라 덩굴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연연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덩굴이 꽃이나 꽃잎에 덩굴처럼 얽혀져 꽃문양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다른 무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된다. 국화는 종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소나무와 국화를 벗하면서 살았다는 일화로 인해 군자의 맑은 아취와 높은 절개를 지닌 꽃으로 숭어 사는 군자, 은일화(隱逸花: 속세를 떠나 숨어있는 꽃)라는 별명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또한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초(齡草: 나이든 식물), 용초(龍草: 나이든 식물), 천대견초(千代見草: 천대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사용하는 문방도구에서 사용된 국화문은 대부분 높은 절개-절조를 상징한다.

원천유물

문양원형

자

자

유형 및 이용조건

한국문화정보원이 창작한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 본 저작물은 "문화포털"에서 서비스 되는 전통문양을 활용하였습니다.

저작물 확인 후 내려받기

국당굴문(20491)

개별문양

문양구분 (2D)

문양 분류 식물문/국당굴문

국적/시대 한국-조선

원천유물명 자

크게보기

이미지 다운로드

문양설명

덩굴은 겨우살이 풀로 거울을 건더낼 뿐만 아니라 덩굴을 이루면서 끊임없이 뻗어나가기 때문에 연연의 상징성을 나타낸다. 덩굴이 꽃이나 꽃잎에 덩굴처럼 얽혀져 꽃문양을 서로 자연스럽게 연결하거나 다른 무늬를 연결하는 연결고리로 사용된다. 국화는 종고 관직을 버리고 고향에 돌아와 소나무와 국화를 벗하면서 살았다는 일화로 인해 군자의 맑은 아취와 높은 절개를 지닌 꽃으로 숭어 사는 군자, 은일화(隱逸花: 속세를 떠나 숨어있는 꽃)라는 별명은 여기에서 연유한다. 또한 늦은 서리를 견디면서 그 청초한 서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영초(齡草: 나이든 식물), 용초(龍草: 나이든 식물), 천대견초(千代見草: 천대에 걸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사용하는 문방도구에서 사용된 국화문은 대부분 높은 절개-절조를 상징한다.

사용을 위한 다운로드

유형에 맞게 출처를 표시한 후 사용하기

공공누리의 전체 메뉴를 확인해보세요

추천 공공저작물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찾아 내려받을 수 있는 메뉴

공공누리 누리집에서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저작물로 유형별, 기관명 등 키워드별로 정리

주제별로 나눠 저작물을 탑재한 각 기관 누리집으로 연결

공공누리

무료 필요한 공공저작물을 찾아보세요!!

이미지 3D 영상 소리 음악 글꼴 우수활용사례 공공누리 소개

추천공공저작물

- 이미지
- 3D
- 영상
- 소리
- 음악
- 글꼴
- 어문
- 키워드 저작물
- 큐레이션
- 우수공공저작물

우수활용사례

- 활용사례
- 활용사례등록 안내
- 활용지원 사업 안내
- 활용 TIP
- 공모전

공공누리 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이벤트
- 콘텐츠-홍보물&웹툰
- 뉴스레터
- 이달의보도자료

공공누리 소개

- 공공누리란?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 공공누리 유형안내
- 자주하는 질문
- 질문과 답변(개인)

개방지원센터

- 개방지원센터 안내
- 자료실-강의실
- 도입기관 소개
- 질문과 답변(기관)

회원관리

- 개인회원 로그인
- 기관회원 로그인
- 회원가입

우수 활용 사례

민간기업의 공공저작물 활용 사례 등 이용자를 위해 공공저작물 활용 팁 제공

2. 각 기관 사이트에서 직접 이용

특정 기관의 공공저작물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저작물 검색 결과 필요한 저작물이 특정 기관의 사이트에 있다면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다면 유형별 조건에 맞춰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6·25전쟁 관련 사진을 찾기 위해
전쟁기념관 누리집의 소장자료 메뉴 확인

원하는 사진을 검색한 후
공공누리 조건에 맞춰 사용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출처표시 후 자유롭게 사용





만화로 알아보는 공공저작물



영상학과 학생인 여누리와 남마루가 과제를 위해 다양한 저작물을 찾고 있습니다.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저작물인 공공저작물을 알게 된 두 학생의 이야기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더 쉽게 이해해보세요.

❶ 공공저작물과 공공누리제도	24
❷ 공공누리 4가지 유형	28
❸ 출처표시	32
❹ 신탁저작물	36
❺ 변형 및 상업적 이용	40



공공누리 제도

공공저작물을 유형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공공누리 산!

공공저작물? 다 예미로 모아놔제

바로 '공공누리 제도'죠.

공공저작물 이용 시 이용조건만 충족하면 저작권자에 일일이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도 없지요.

싱긋~

이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 걱정도 없고 무료인데다,



공공누리 4가지 유형

우선 4가지 유형별로 사용조건에 알맞게 사용하면 됩니다.

사용한 공공저작물엔 반드시 출처표시를 명시해야 하지요.

출처표시

OPEN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유형: 출처표시	제2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OPEN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3유형: 출처표시/변경금지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출처표시

이런 공공저작물들은 '공공누리'에 접속하면 한 번에 찾기도 쉬울 뿐더러,

이를 활용해 다양한 콘텐츠나 제품, 유용한 어플까지 만들 수 있으니 참으로 좋은 시스템이지 않나요.

신탁저작물

이 밖에도,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신탁관리시스템'을 통해 서울시나 문화재청 등의 기관에서 위탁 받은 공공저작물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ALRIGHT

이런 꿀팁은 진짜 알려 주셨으면...

공격

아... 하하하!

지난 수업 때 알려줬었는데, 결석했나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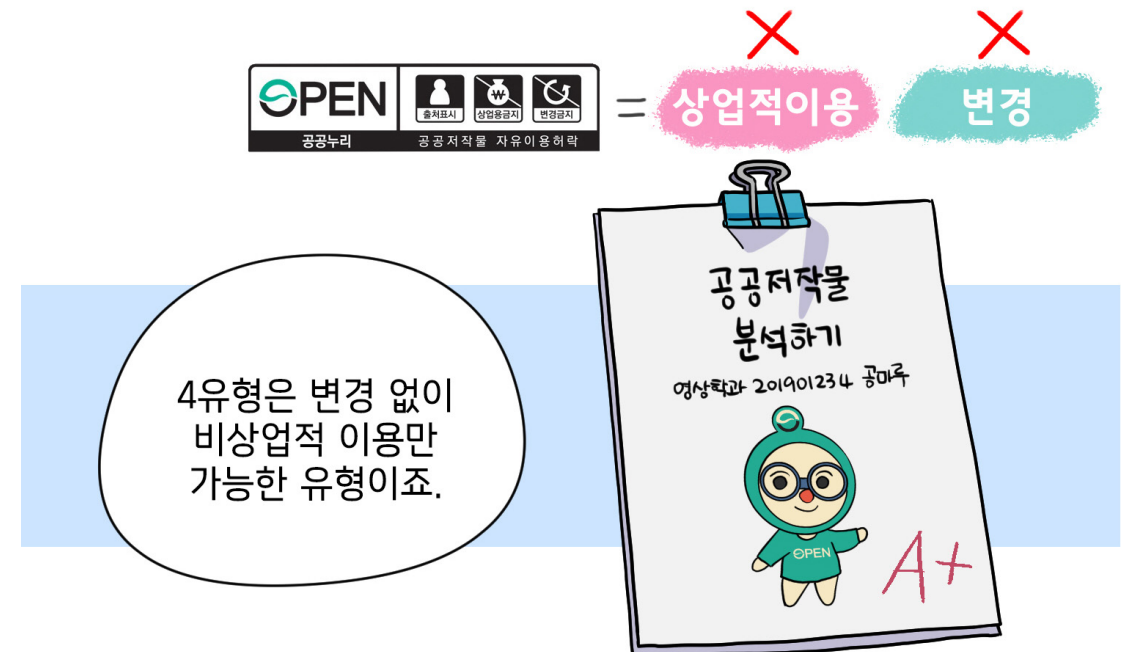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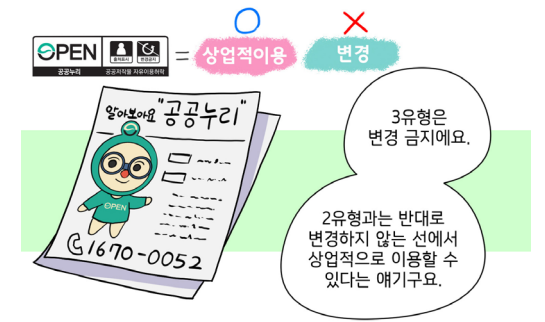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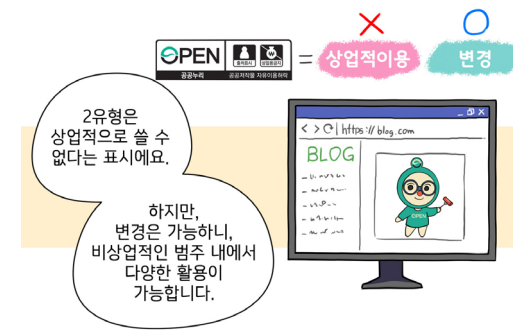
이제 감 잡았어요! 그럼 공공누리로 Go Go~!!

선배, 같이 가요~!

하하.



※ 변경 (2차적 저작물 작성)







*출처표시 의무
저작권법 제37조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 저작권자(=제공자)를 표시 해야 함.



다음날



출처표시 ≠ 공공누리 유형마크



공공누리사이트
‘공공누리 유형안내’ 참조

1. 출처 표시 예시

본 저작물은 ‘○○○(기관명)’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기관명). ○○○(홈페이지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하, 충분히 헛갈릴 수 있어요. 이용자는 출처표시를 이렇게 텍스트로 해주면 된답니다.

하지만 이것도 예시일 뿐,

사실 크게 정해진 양식은 없으니 제공자가 누군지만 확실히 알 수 있게끔 표기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럼, 그 출처표시는 어느 위치에 넣어야 적절할까요?

출처표시는 반드시 어디에 넣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저작물 특성에 따라 권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한옥에 관한 논문(출처:문화재청).hwp	문서 - 문서 마지막 페이지 - 파일명
정책설명서 (자료:문화재청)	상품 - 상세 설명서
유리 안경 설명서	출판물 - 출판물 표지(우측상단) - 출판물 내지
연필크레딧 (자료:문화재청)	영상 - 연필크레딧
사진 하단	사진 - 사진 하단
음악(출처:문화재청).mp3	음원 -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광고물:포스터/현수막/간판 등 - 저작물의 모서리

혹시나 인터넷에 저작물이 업로드 될 경우엔 그 사이트에도 동일하게 출처표시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교수님... 혹시 부득이하게 출처표시가 어려울 경우엔 어떻게 하죠?

출처표시가 안되면 자료를 쓸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못 쓰겠지. 출처표시가 기본약속인데 생략하면 되겠어?

하하, 원래는 그게 맞지만 출처표시가 어려운데 꼭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면,

출처생략에 대해 해당기관에 직접 연락을 취해 별도의 허락을 받으면 됩니다.

결국 요지는,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 소유의 저작물을 ‘빌려쓰는’ 것이므로 기본적으로 출처표시는 최소한 지켜야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 이번 공모에서는 반드시 출처표시를 꼼꼼히 체크해서 제출해보세요.

네... 넵!



그럼~
한국문화정보원이
운영하고 있는
신작관리시스템을
'ALRIGHT'라고 불러.

KCISA 한국문화정보원

신작저작물 = ALRIGHT



우선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하는 법률관계를 뜻한다.

마찬가지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중 일부를
한국문화정보원이 각 기관을
대신해 저작물을 관리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재산권을
이전해 관리하는 저작물을
신탁저작물이라고 해.

음...그럼,
공공누리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이랑
ALRIGHT에서 제공
되는 신탁저작물의
차이점은 뭐예요?

둘 다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소유의
저작물을 제공하는 건
똑같지 않아요?



ALRIGHT이 제공하는
신탁저작물은,
1) 저작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 3자가
공공누리 자유이용이나
무료개방에 동의하지 않거나,

2) 국가안전보장, 업무상 비밀
또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으로서
자유이용개방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관으로부터 저작물을
신탁받아, 이용허락 및 이용료
징수를 위탁 처리해준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란다.



※ 신탁저작물은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에 한함.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은
한국문화정보원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을 통해
변거로운 저작물 관리를
맡길 수 있어 편리할 뿐더러,

사용신청 내역으로
이용현황 파악이 가능해지니
불법이용에 대해 차단할 수
있게 되고 또, 문제가 될 경우
법적 대응까지도 할 수 있어
안전한 저작물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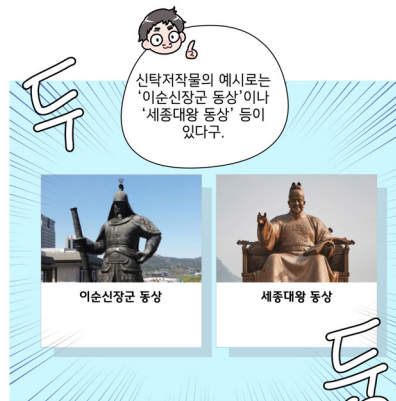


반면 우리같은
사용자 입장에서도
저렴한 사용료만 지불하면
신탁관리시스템
(ALRIGHT)이라는
단일 창구를 통해
여러 개의 저작물을 쉽게
신청할 수 있고,

품질까지
보장되니
서로 윈윈이지.



신청방법
한국문화정보원 개방지원센터: 1670-0052
신탁관리시스템(ALRIGHT)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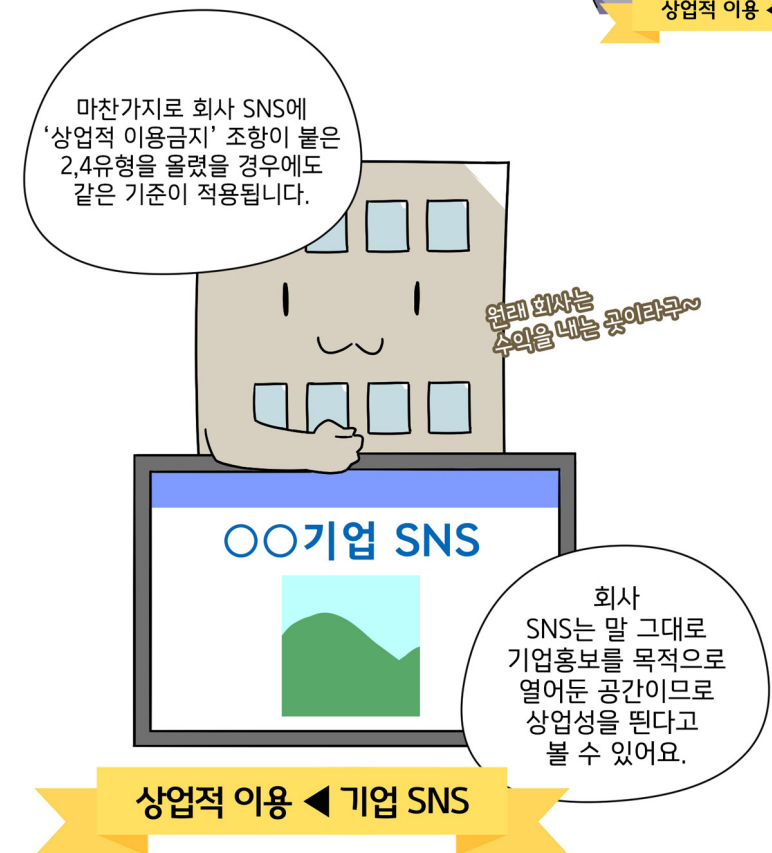
와...!
그럼 저도 아까 찾은
공모전소스를 빨리
ALRIGHT 통해서
사용신청부터
해야겠는 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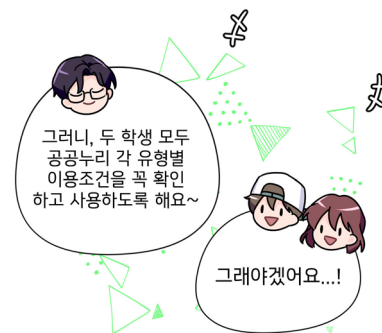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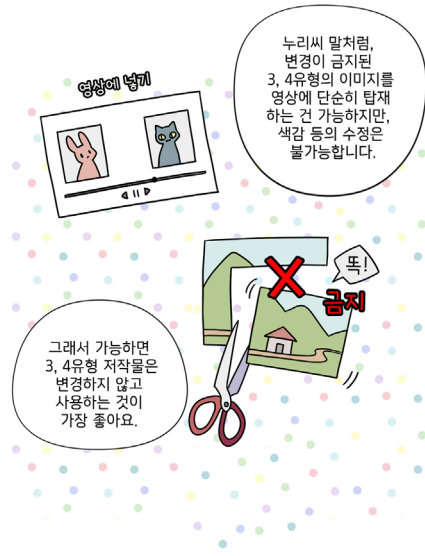


정원 선배!
다음에 우리학생들에게
공공저작물 활용
특강 좀 해주실래요?



그래~
다음에 특강
한 번 해주지~
하하하~





공공누리 이용자를 위한

Q&A 가이드



지난 10년간 공공누리 사이트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이용자들이 전해온 질문 100가지를 추렸습니다. 공공저작물 이용범위와 출처표시, 저작권 위반 여부 등 저작물을 활용하며 확인하고 싶었던 사안에 대한 저작권 담당 변호사의 답변을 참조해보세요. 공공저작물을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① 공공누리 제도 및 공공누리 사이트	46
② 공공저작물 일반	58
③ 유형별 공공저작물	84
④ 출처표시	104
⑤ 상업적 이용	120
⑥ 변형	132
⑦ 위반	144
⑧ 일반 저작권	148



01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작성한 것이면 저작권재산권의 소유(일부/전부)와 관계없이 공공저작물인가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에 해당합니다(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

다만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5-43호) 제3조 제2호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 “‘공공저작물’이란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권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공공저작물의 정의에 관하여는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저작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등이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나머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를 예정한 것인 바, 저작권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공동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공공누리 마크 부착 및 이용허락에 동의한 경우라면 자유이용대상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저작권재산권

02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기관 누리집에서만 부착이 가능한가요? 개인이 창작한 저작물에는 부착할 수 없나요?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으로 그 대상이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이 창작한 저작물에 한합니다. 기본적으로 공공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대표 누리집에 부착이 되며, 이 기관들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들에도 부착됩니다. 물론 이들 기관이 공식 운영하는 블로그 등에도 부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는 공공저작권을 가진 공공저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표시 제도이므로,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나 웹사이트 등은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 창작 저작물이라면 CCL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개인 저작권자가 저작물 사용 조건을 미리 제시하여 사용자로 하여금 저작권자에게 별도로 허락을 구하지 않고도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오픈 라이선스입니다.

#개인저작물 #CCL



03 공공기관의 외국어 저작물에도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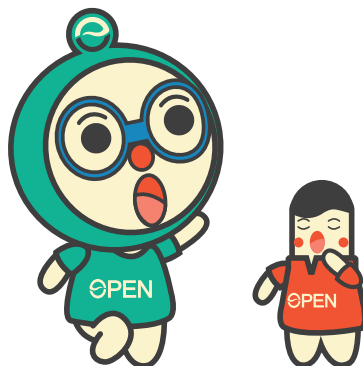
공공누리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방대한 양의 저작물 중에서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표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의 업무상 저작물 또는 저작권 양도 등을 통해 공공기관 등에 저작권 전부가 귀속된 저작물이라면 표현된 언어에 무관하게 당연히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기관_외국어저작물

04 공공기관 누리집 메인 화면에 별도의 유형 표시가 없이 공공누리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런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저작물 중 어떤 것이든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하면 되나요?

기관 누리집에 공공누리 대표 마크 표시가 있는 것은 해당 기관이 공공누리 제도를 도입했다는 표시이기는 하지만 각 게시판에 업로드된 저작물에 대하여 그 이용범위를 기관 담당자가 정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누리 유형 표시가 없다면 공공누리가 적용된 저작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에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_누리집 #공공누리_표시





05

이용허락 조건에 4가지 유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4개 유형인 경우 그에 따라 명시된 조건을 지키면 저작자에게 문의하지 않아도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 것이고, 4개 유형에 속하지 않는다고 표시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허락을 받아 이용하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 저작자가 허락한다면 출처표시, 상업적 용도,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도 가능한 것이지요? 붙임 마크에 대한 개념적 의미를 알고 싶습니다.

공공누리란 공공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마련한 공공저작물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입니다. 출처표시 의무를 기본 조건으로 하고, 상업적 이용금지, 변경금지 의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총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중 하나를 선택 적용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유형의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되어 있으면 제공 기관에 문의할 필요 없이 출처를 표시하고 부착된 유형에 따라서 이용하실 수 있으나,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다면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포함된 저작물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에 문의 후 별도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공공누리제외_콘텐츠 #이용허락

06

공공누리와 상표권의 관계가 궁금합니다. 공공기관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캐릭터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고, 상업적으로 사용 가능한 공공누리 유형이라면 민간에서 상업적으로 제품을 만들어도 되는 건가요? 또는 상표권 등록을 이유로 공공누리 유형에 관계없이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우선 공공누리는 저작권법을 근거로 한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이고, 상표권은 상표법을 근거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공공기관 등에서 상표권 등록을 해놓은 캐릭터의 경우 해당 캐릭터에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다면 각각의 공공누리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캐릭터의 저작권은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누리가 부착된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상표권 사용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표의 용도로 이용하실 위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의 개별적인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상표권등록 #공공저작물_이용

참조 판례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12.11. 선고 2012다76829 판결)

저작물과 상표는 배타적·타일적인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상표법상 상표를 구성할 수 있는 도형 등이라도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고, 그것이 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 여부가 달라진다고 할 수는 없다.



07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이미지명을 검색해 나오는 자료를 클릭해서 보려고 하면 오류가 나서 사진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공누리 서비스는 사이트 내부에 탑재된 콘텐츠 제공과 기관과 연계된 콘텐츠 제공 등 2가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공공누리 사이트 안에 탑재된 콘텐츠인 경우 검색을 통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해당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의 사이트로 연계(URL 링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혹 해당 기관의 사이트 URL이 변경되었거나, 사진을 삭제한 게시물이 있을 수 있으니 기관 연계 콘텐츠의 경우라면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 누리집에서 다시 검색하거나 기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공공누리_사이트 #기관연계_콘텐츠

08 공공누리 사이트에서는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나오는데 원문 사이트로 이동하면 다른 유형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유형 조건에 따르면 되나요?

동일한 저작물에 대하여 공공누리 사이트 게시물에는 공공누리 제1유형이 부착되어 있고, 링크된 기관 게시물에는 다른 유형이 부착되어 있다면 기관에서 부착한 유형의 이용조건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공저작물을 제공하는 기관은 기관의 저작권 정책에 따라 공공누리 유형을 부착하는 것이고,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1항3호에 따라 정책 변경 및 추가적인 권리 확인에 의해 공공누리 유형을 수정하여 부착할 수도 있는 것이므로 이용자로서는 기관 게시물에 부착된 공공누리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누리_유형 #기관부착_유형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 제15조(공공저작물의 제공중단)

- ① 공공기관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1.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2. 공공저작물의 이용이 제3자의 권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
 3. 적용중인 공공누리 유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4. 공공저작물 제공 및 이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공공저작물을 불법행위 등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 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된 경우에는 즉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제공이 중단되었음을 공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09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재 관리 주체로부터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허락 없이 문화재를 디자인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문화재라 하더라도 이를 토대로 창작한 사진, 영상, 그림 등 2차적 저작물은 별도로 보호되므로, 이와 같이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하시는 경우라면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특정 문화재의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해 촬영 및 이용에 일정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화재를 복제한 결과물을 영리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관리 주체를 통해 이용 절차 등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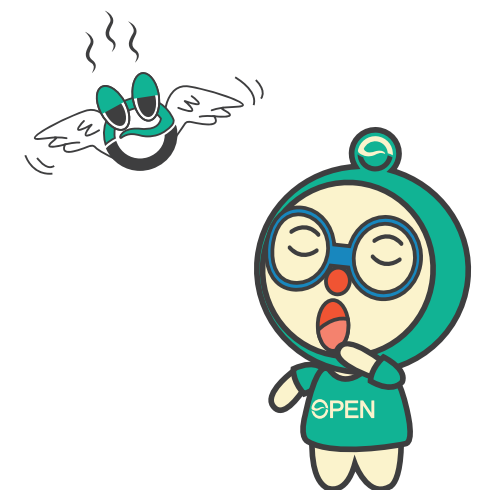
#문화재 #저작권_보호기간만료 #2차적 저작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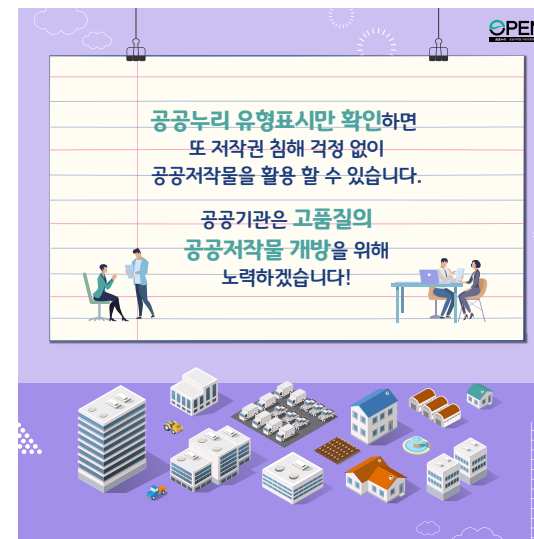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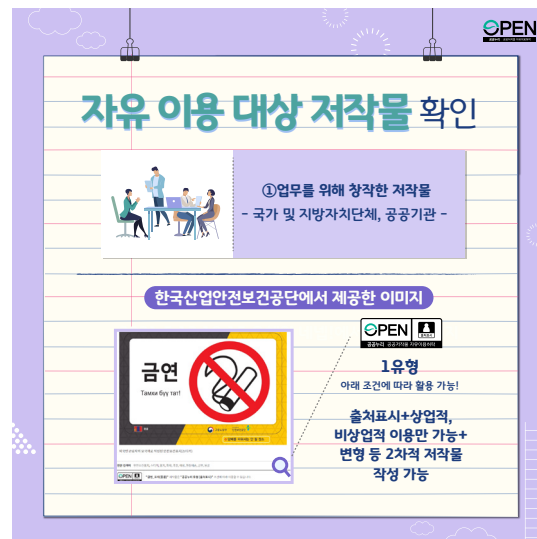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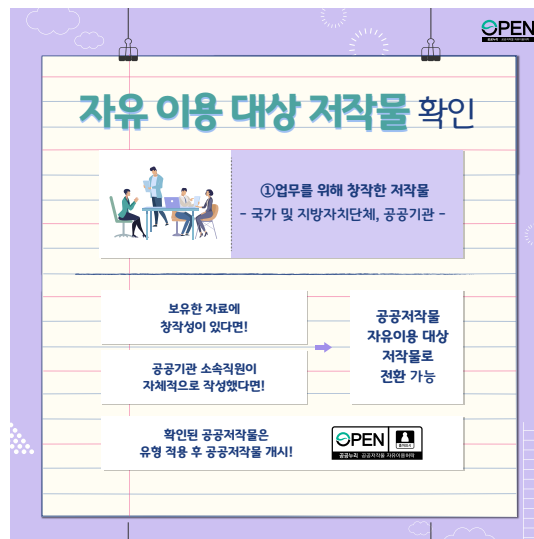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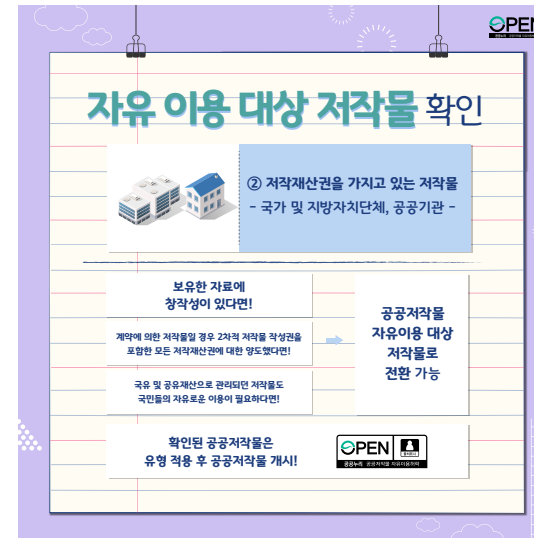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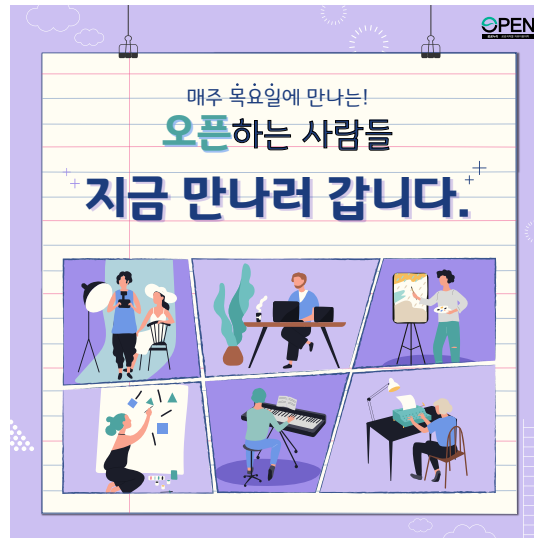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 ① 공공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공저작물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 저작물입니다. 공공저작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확인해보세요.

활용 안심글꼴: 경기천년체제목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10

공공저작물을 비영리 목적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게시 및 애플리케이션 제작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로고·CI·엠블럼·마스코트는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는지, 공공누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각 지자체에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자체의 로고, CI 등도 창작성이 인정되는 경우 저작물로 볼 수 있고, 저작권이 지자체에 귀속되어 있다면 공공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유이용 대상인지 여부는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로고, CI 등을 저작권 등록 등을 통해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일단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게시물은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이용 목적 및 내용에 따라 공정한 범위 내의 이용으로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 경우는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법원이 하는 것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각 지자체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자체_저작물 #CI #엠블럼 #마스코트

11

우리 업체의 수행 경력을 소개하기 위해 공공기관 로고 등을 사용하려면 사전에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허락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이용하는 경우 이용방법에 따라 상표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위반이 될 수 있으나, 사안과 같이 상업적 이용이 아닌 단순히 수행 경력을 소개하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특별히 문제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용방법이나 범위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하거나 관행과 다른 특별한 이용에 해당한다면 해당 기관에 문의 후 이용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공기관_로고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12

대학교 교재 제작을 위해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를 일부 변형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도 공공저작물 이용에 해당하나요? 해당한다면 어떻게 이용해야 하나요?

통계자료의 경우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된 창작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저작물로 인정하기 어려우나,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공저작물로서 공공누리 적용 대상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공공기관에서는 공공누리 표시를 통해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임을 안내하고 있으며,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자료는 유형별 조건에 따라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마크의 부착 여부 및 공공누리 유형을 확인하고 조건에 맞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구보고서의 연구 성과나 통계수치 등을 수정하여 제3자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는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이용 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저작물이 아닌 단순 통계자료더라도 이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할 경우 이용자들이 해당 공공기관의 통계자료로 오인하는 등 착오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당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_통계자료 #대학교재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3조(동일성유지권)

- ①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에 대하여는 이의(異議)할 수 없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표현의 변경
 2.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
 3.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4.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의 변경
 5.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의 변경



13

평소 공공저작물을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다면, 해당 공공저작물에 포함되어 있는 사진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저작물에 부착된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공공누리 제2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고,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이 부착된 자료의 경우 변형이 금지되므로, 각 조건을 확인하신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공저작물_어문자료 #사진사용

14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서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공공기관에서 배포하는 보도자료는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에 규정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부고 기사, 간단한 사건 사고 기사처럼 단순한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보도를 의미합니다. 단순한 사실의 전달이 아닌 기자의 사상이나 감정이 표현된 기사로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도자료에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형별 이용조건에 따라 허락 없이 이용하실 수 있지만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 후 이용 허락을 받고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공기관_보도자료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15

기관 누리집에서 서비스하는 지도도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 대상인가요? 또 지도의 일정 부분만 사용하거나 제목 등을 바꿔서 사용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8호는 '지도'를 저작물 예시로 들고 있으나, 약속된 기호를 사용하여 자연물과 도로 등을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일반적인 지도는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서비스하는 지도 중 특별히 창작성이 있는 것은(예시: 삽화가 포함된 관광안내지도 등)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관에서 직접 지도를 제작한 경우라면 공공저작물로 자유이용 대상이 되나, 용역 등 위탁 제작된 경우라면 위탁 제작된 지도에 대해 저작권 양도나 이용허락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자유이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지도에 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제2유형이 부착되어 있다면 변형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이 붙어 있는 경우나 공공누리 마크가 미부착된 저작물이라면 저작권을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저작물_지도

참조 판례



지도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로서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50586 판결)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이기 위하여는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어야 하므로 그 요건으로서 창작성이 요구되는바, 일반적으로 지도는 지표상의 산맥·하천 등의 자연적 현상과 도로·도시·건물 등의 인문적 현상을 일정한 축적으로 미리 약속한 특정한 기호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지도상에 표현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은 사실 그 자체로서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지도의 창작성 유무의 판단에 있어서는 지도의 내용이 되는 자연적 현상과 인문적 현상을 종래와 다른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였는지 여부와 그 표현된 내용의 취사선택에 창작성이 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도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미리 약속된 특성의 기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등 상당한 제한이 있어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 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제작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8. 11. 선고 2005가단12610 판결)

춘천시의 전경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는 관광지도 제작에 있어서, 의도적인 왜곡표현으로 다운타운 지역을 크게 나타내고, 다운타운 지역으로부터 원거리에 산재되어 있는 관광명소들을 실제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한눈에 관광명소를 볼 수 있도록 제작한 관광지도에 대하여 기존의 관광지도와 구별되는 저작권이 인정된다.



16

대학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논문을 작성했습니다. 이 논문을 해당 대학교의 연구 참여자였던 교수님의 논문 작성을 위한 이용이 가능한가요? 저작권 침해는 별도로 없나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을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의 작성자인 교수에게 있습니다. 업무상 저작물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저작권은 창작자가 원시적으로 갖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기관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받았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 참여자가 작성한 부분에 한해서는 작성자가 저작권자가 되므로 작성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양도받았다면 저작권자는 기관이 되므로 기관의 허락을 받아 이용해야 하고, 다른 제3자와 함께 작성하여 공동저작물에 해당한다면 다른 제3자의 동의 또한 받고 이용해야 합니다.

#공공기관_용역논문 #업무상저작물_저작자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는 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경우 공표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17

해외 기관이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도 공공저작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

해외 공공저작물의 경우에도 개방되어 있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국마다 개방의 정도 및 이용범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공공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공공누리와 마찬가지로 공공저작물자유이용 허락표시기준으로, 일본은 독자 라이선스를 개발했고(자유이용 마크제도), 호주와 뉴질랜드는 CCL을 사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포괄적인 이용약관 형식의 OGL(Open Government License)을 개발했습니다. OGL은 정부가 공개하는 저작물과 공공 부문 데이터 저장소에 대한 무료 저작권으로 일종의 오픈 라이선스입니다.

이처럼 자유이용 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표시기준에 따라 이용범위를 확인하여 이용하시면 되고, 해외 공공저작물 활용 시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해외_공공저작물



18

저작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자료를 강의용 교재 제작 등에 활용할 수 있나요?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고,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 송신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인용 가능 여부는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저작권이 제한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고 활용해야 합니다.

#저작권_미확보 #강의교재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

- ①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
- ② 교과용도서를 발행한 자는 교과용도서를 본래의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교과용도서에 게재한 저작물을 복제·배포·공중송신할 수 있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이 수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이하 이 조에서 “복제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표된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등을 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등을 할 수 있다.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2.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19

학교 수업 온라인 학습자료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질병관리청 등의 동영상을 녹화해 수업 게시판에 올려도 되나요?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면 유형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하나,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저작물에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등)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5조 제2항에 해당되어 학교 수업 목적으로 사용하더라도 일부 이용이 원칙이며,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인지 여부, 수업 목적, 이용범위 등에 대해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유 기관에 사전 문의 후 게재할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공기관_영상 #수업자료



20

A교육용 간행물은 기관 직원 및 A교육 강사진이 작성했습니다. 외부 강사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집필한 교재를 외부강사(초상권자 포함)로부터 저작권 양도나 자유이용 허락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학습용 교재로 활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 이외에서의 자유이용은 불가능한가요?

외부 강사진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간행물을 집필한 경우라면 이는 공동저작물로 강사진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자유이용하기 위해서는 강사진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따라서 자유이용 등에 관하여 별도의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자유이용을 포함한 공공저작물 개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유이용 허락은 간행물 작성 후에도 언제든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간물 작성 이후라고 하더라도 저작권 양도나 자유이용 허락 동의를 받는다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동저작물 #학습자료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 ② 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①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21

손님들이 오가며 볼 수 있게 영상을 상영하고 싶은데 출처를 표시하면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는 영상을 사용할 수 있나요? 수정 없이 출처를 표시하고 상영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는 영상은 유형별로 사용 조건이 다릅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후 사용

공공누리 제2유형: 상업적 이용금지 및 출처표시 후 사용

공공누리 제3유형: 변경금지 및 출처표시 후 사용

공공누리 제4유형: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출처표시 후 사용

따라서 변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공공누리 제1유형 또는 제3유형의 저작물을 이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에도 영리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공공누리 제2유형 및 제4유형의 경우 해당 저작물 담당 기관에 문의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저작물_영상 #상업공간사용



22

정부부처에서 업무상 작성한 해외 언론 번역이나 요약물은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요?

정부부처에서 업무상 작성한 해외 언론 번역 및 요약물은 공공저작물에 해당하나, 이는 원저작물이 존재하는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차적 저작물의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자인 정부부처의 허락 외에도 원저작자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용이 가능하므로 공공저작물이더라도 원저작자의 동의가 없다면 활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문의 후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해외언론_요약물 #2차적 저작물

23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의 내용을 개인이 출판하는 책에 삽입할 경우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이용허락을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만약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이용허락은 필수 절차인가요?

원칙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경우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이며, 저작재산권을 일부만 보유한 경우 나머지 저작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공공기관에서 공표한 저작물이라 하더라도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면 공공기관에서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단서 각호에 해당할 경우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서 제외되며,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9-6호) 제11조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어 있지 않은 저작물에 대해서는 해당 공공기관에 문의 후 허락을 받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기관_공표저작물 #개인출판이용허락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24

거리의 조형물(세종대왕상, 평화의 소녀상 등)을 촬영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광화문의 세종대왕 동상은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의 자유이용의 예외 사유에 해당해 현재 서울특별시가 한국문화정보원에 저작권을 신탁하여 관리되고 있는 저작물(공유 재산)입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국문화정보원에 개별적으로 이용신청을 하고 사용료를 징수한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 다른 조형물의 경우는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먼저 파악하신 후 저작권자로부터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받고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형물_이용 #세종대왕상 #평화의소녀상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13조(이용료 징수)

공공기관 등은 제11조 제2항 및 제3항의 사유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된 저작물 중 운영상의 이유로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라 신탁하거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허가한 신탁관리업자의 「공공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을 준용하여 직접 징수할 수 있다

25

세종대왕 동상을 촬영하여 SNS에 게재하고자 하는데 이용 신청 방법과 사용료 발생 여부 및 세종대왕 동상 위에 모자를 씌워서 촬영해도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세종대왕 동상은 한국문화정보원이 신탁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로 동상을 촬영해 광고 목적으로 SNS에 게재하는 경우 사용료가 부과됩니다. 이용신청은 신탁관리시스템에서 이용허락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제출하면 되고, 활용 시 저작권자인 서울특별시의 동일성유지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CG로 모자를 씌우는 등 약간의 변경을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물 동상에 모자를 씌워 촬영하고자 할 경우 동상의 소유자인 서울시에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조형물_변형이용



26 KOGL 폰트와 OFL 폰트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KOGL 폰트는 국가기관,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공공저작물인 안심글꼴이며,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출처표시를 전제로 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OFL(Open Font Licence)은 민간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민간 안심글꼴이며, 해당 폰트를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 한 출처표시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표시를 전제로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안심글꼴 #KOGL #OFL

27 고문헌과 같이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에 한하여 도서관에 보관 중인 것이 있습니다. 최근 디지털화하여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미지 자료는 해당 기관에 저작권이 있나요?

이렇게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를 소장 도서관에 인쇄 요청해 스캔본을 받은 경우 저작권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고문헌 내용의 경우 저작권법의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문헌을 찍은 이미지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미지 사용을 위해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이라고 할지라도 소유권자(도서관)와의 분쟁 가능성은 남아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미 저작권이 만료된 자료라고 할지라도 그 자료를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이미지화한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쇄 요청을 요구하여 받은 스캔본의 경우 해당 인쇄 목적하에서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얻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 저작권자의 허락을 다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작권_만료자료 #스캔본



28

안심글꼴을 이용해 제작한 로고를 상표등록해도 되나요? 저작권 침해 문제는 없나요?

만약 로고 제작에 사용한 안심글꼴이 공공누리 제1유형이고, 폰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로고 자체의 저작권자는 로고를 직접 창작한 자이므로 안심글꼴 저작권 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며, 상표법상 상표등록의 요건을 갖추면 상표등록이 가능합니다.

#안심글꼴_활용 #상표등록

29

기관에서 제작한 영상물 중 연예인이 나오는 캠페인 송을 영어나 일어 등으로 번역해 사용하려고 합니다. 사용한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표시도 하고요. 혹시 공공저작물 중에 연예인이 나와서 캠페인 송을 부르는 동영상을 자유이용하는 데 초상권 측면에서 문제 되는 요소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등 관련 동의를 구하지 못한 저작물의 경우 자유이용 대상 저작물에서 제외됩니다. 초상권은 저작권과는 별개의 권리로 헌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일일이 허락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자체의 저작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일 뿐 일반 국민의 초상권 행사 권리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을 때 초상권에 대해서 별도로 허락을 받는 것이 사후 분쟁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기관의 공공저작물에 타인의 초상권이 포함된 경우 저작물을 보호한 기관에 문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연예인_출연 #캠페인송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30

한국교육방송공사(EBS)는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공공기관이죠? 그런데 공공누리 표시가 된 저작물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더군요. 그렇다면 EBS의 콘텐츠(EBS가 저작권 전부를 보유한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자유이용에서 제외되는 콘텐츠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EBS뿐 아니라 다른 공공기관의 콘텐츠(저작권 전부를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한 콘텐츠)도 공공누리 표시가 없다면 반드시 별도 문의를 해야만 이용이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출처 표시 후 자유이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방송법에 근거한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저작권법 제24조의2 대상 기관이 아닙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 3호). 공공기관 콘텐츠의 경우에는 공공누리 표시가 있는 저작물만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나 급히 활용이 필요한 경우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에 해당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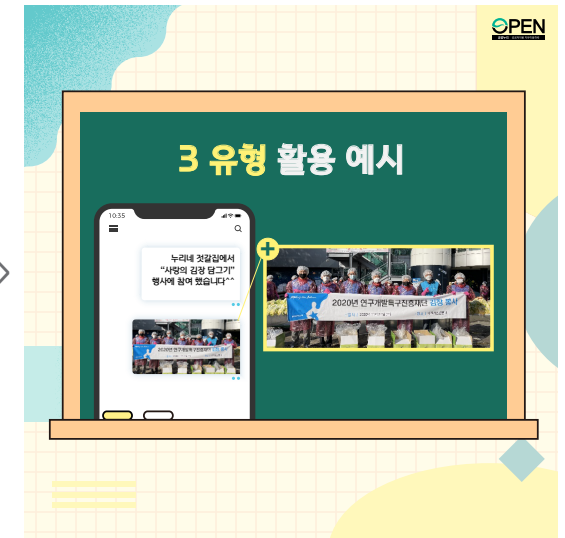
#EBS콘텐츠

참조 법령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

-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저작물 상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알기 쉽게, 이용하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제1유형, 제3유형 → 상업적 이용 (O) / 제2유형, 제4유형 → 상업적 이용 (X)

활용 안심글꼴: 한수원 한돌움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31

양평군체의 서체를 윤곽선화해 디자인을 약간 변형한 후 CI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 양평군체의 디자인을 변형하여 CI에 사용해도 되나요?

양평군체는 공공누리 제1유형인 안심글꼴이므로 변형하여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공공누리_제1유형 #안심글꼴변형

32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공공누리 표시만 하면 해외 출판사라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정책의 경우 취지가 국민의 국내 이용 활성화입니다. 이러한 취지로 인하여 공공저작물의 경우 독점적 출판 계약이 불가능하고, 해외 사용에 관한 규정이 모호합니다. 이에 저작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에게 개별적인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1유형 #해외출판

33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는 검색 기능을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기능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배포할 경우 검색 기능이 있는 페이지에 공공누리 제1유형 표시를 해야 하나요?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를 부착하는 주체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며, 민간인이 부착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인이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을 내려받을 수 있게 제공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7조에 의하여 출처표시를 하여야 함이 의무 사항입니다. 또한 내려받아 재사용하는 주체가 공공누리 제1유형이고, 그 유형의 이용조건을 인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모든 저작물에 출처(국가·지자체·공공기관명)와 공공누리 제1유형이라는 안내 문구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1유형 #출처표시



34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는 저작물은 상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상품 디자인으로 사용하여 제품 판매를 해도 무방하다는 뜻인가요?

공공누리 제1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저작물을 활용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제품 또는 제품 패키지(설명서, 케이스 등)에 적절하게 출처표시를 하면 됩니다.

#공공누리_제1유형 #상품디자인

35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공공누리 제2유형 저작물에 저희 회사의 로고를 넣어 홍보용으로 무료 배포하고자 합니다.

제작 공공기관 로고 옆에 나란히 저희 로고를 넣고자 하는데, 이 경우 이용규칙을 어기는 게 되는지요? 공공누리 제2유형의 경우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한데, 저희 회사 홍보용으로 로고를 넣어 무료로 배포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이 맞나요?

상업적 이용의 범주에는 금전적인 이득뿐 아니라 무형적 이득도 포함됩니다. 무료로 배포한다고 해도 기업 홍보의 일환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상업적 이용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 저작물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관의 개별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2유형 #회사홍보



36

공공누리 제2유형에 해당하는 창작 동요제 음원을 대회에 출품할 교육 영상자료에 활용하고자 합니다. 음원 파일을 내려받아 동영상에 활용 시 자막으로 출처를 표시하고, 출품 설명서 등에 음원 출처표시를 하면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공공누리 제2유형은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지만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대회에서 상품을 수령하는 등 금품적 이득이 생기거나, 향후 교육영상자료가 유료로 이용되거나, 광고가 게재된 유튜브·블로그 등에 게시되는 행위와 같이 일체의 이득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비금전적 이득인 홍보 효과 등 포함)에는 공공누리 제2유형 이용조건에 위배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관의 개별 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 경우도 출처를 반드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출처표시의 위치는 일반인이 인식 가능한 위치라면 어디든 괜찮습니다.

#공공누리_제2유형 #대회출품자료

37

공공누리 제2유형의 경우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누리 제2유형으로 표기된 기재부 보도자료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엑셀로 그래프를 만들고 저의 데이터 해석이 들어간 2차적 저작물인 경우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 여부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게재 시 광고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한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수익 창출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이 또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수익을 창출하지 않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은 가능하나, 이 경우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며, 출처표시 생략 시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2유형 #수치데이터 #유튜브활용



38

공공누리 제3유형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을 책자로 다시 제작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자 합니다. 변경금지라는 내용에만 해당하는 것인가요? 표지에 저희 회사의 로고 표시를 넣어도 되는지, 출처표시는 하되 공공누리 로고는 빼야 할 것 같은데 발행 정보에서 인쇄처나 발간등록번호는 제외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에서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는 저작물의 변형에 따라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크다면 변경금지 조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 로고를 표지에 표시할 경우, 이용기관이 원작자인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사전 동의를 얻고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누리 마크는 공공저작물 개방 시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이 이용자로 하여금 이용 조건 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이용 시 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자가 출처표시를 하는 경우 창작자(기관명), 저작 연도, 저작물명, 기관의 URL 정도를 기재하면 되고, 인쇄처나 발간등록번호는 반드시 삽입할 것을 요하지 않습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인쇄배포 #출처표시

39

공공누리 제3유형을 이용하여 책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저작권에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글은 참고만 하고 그림을 변형 없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3유형은 출처표시를 전제로 상업적 이용이 가능하나 변경이 금지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저작물의 일부인 그림만 별도로 책자 안에 삽입할 경우 변경금지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저작권자로부터 이용방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일부사용 #출판

40

국토교통부 pdf 자료에 공공누리 제3유형 마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변형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출판해도 되나요?

공공누리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금지 조건 유형이므로 변형하지 않고 출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출판



41

행안부 자료실에 있는 공공누리 제4유형 국민행동 매뉴얼 포스터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포스터에 회사 로고를 함께 부착해도 되나요?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됩니다. 포스터에 회사 마크를 부착하는 경우 변경금지에 위배되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이용허락을 받는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포스터_편집

42

공공누리 제4유형의 콘텐츠를 활용해 영상물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출처표시만 한다면 해당 글의 내용을 발췌해 사용해도 되나요?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물의 경우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됩니다. 방송의 경우 상업광고가 포함되거나 시청료를 받는 경우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방영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할 경우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콘텐츠의 내용을 발췌하여 영상에 삽입하는 형태로 활용할 경우 변경금지에 저촉될 우려도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공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별도로 문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영상물_제작

43

회사에서 제품에 대한 상세 정보 페이지를 만들 때 공공누리 제4유형 자료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회사 사이트지만 무료로 정보 제공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입니다. 정확한 출처와 필요 요건을 모두 기입하고, 자료의 내용 편집을 피하기 위해 링크로 삽입한다면 사용 가능할까요?

상업적 이용의 범위에는 직접적 상업적 이용(판매 등) 뿐만 아니라 간접적 의미의 상업적 이용도 포함됩니다. 단순 무료정보제공 사이트이더라도 회사 홍보를 위해 운영되는 것이라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의한 바와 같이 링크만 표시하는 것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는 해당되지 않으나 임베디드 형식의 링크(웹페이지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링크된 정보가 재생되는 방식의 링크)는 저촉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기업사이트_활용 #링크삽입



44

공공누리 제4유형에 해당하는 콘텐츠를 회사 내에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내부 인트라넷에 해당 콘텐츠를 등재하여 직원들의 자율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해당 콘텐츠를 이용해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 등 영리 목적이 아님에도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할까요?

사기업의 경우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여 무료로 정보 제공만을 위해 운영되는 사이트라고 하더라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므로 공공누리 제2유형 또는 제4유형 자료의 활용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작물 보유 기관의 개별 허락을 얻어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회사교육자료_사용

45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에 해당하는 pdf 파일을 제본해서 개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되나요?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 저작물을 개인 학습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변형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용가능합니다. 다만 단순 발췌가 아닌 일부 ppt 내용을 변형하여 새로운 제본 책자를 만들어 배포할 경우 변형금지 조건에 위반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개인학습자료_사용

46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블로그에 글을 쓰고 싶은데, 블로그에 광고가 붙어 있다면 상업적 이용일까요?

광고가 붙어 있는 블로그 게재의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저작권을 보유한 기관에 사전에 허락을 받고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개인블로그



47 초등 검정교과서를 만드는데 공공누리에서 제공하는 영상을 사용해도 될까요?
찾은 영상이 공공누리 제4유형이어서 변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형은 하지 않고 영상의 일부분만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괜찮을까요?

초등 검정 교과서의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하여 만든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변형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금지된 공공누리 제3유형, 제4유형의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는 영상을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그렇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즉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는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불가능하나 저작권법 제25조에 의한 법정허락제도로써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쟁 예방을 위하여 해당 자료의 저작권자인 기관에 협의 후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초등검정교과서 #영상_일부사용

48 질병관리청에서 게시한 공공누리 제4유형 포스터를 내려받아 가게 앞에 부착해도 되나요?

사용 용도가 상업적이지 않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공공성을 가진다면 저작물 변경 없이 출처표시 후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물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확인 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포스터

49 공공누리 제4유형 변경금지 조건은 본 저작자가 동의를 해도 2차적 저작물 작성이 불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4유형의 경우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 금지됩니다. 다만 저작자인 저작물 보유 기관의 허락을 받은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저작자_동의 #2차저작물



50

비영리단체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배포할 책자를 제작하려 할 때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미지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의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에 따라 책자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이용자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용조건을 준수한다면 책자에 이미지를 삽입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비영리단체 #출판

51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저작물인 영상 두 편을 수정 없이 붙여서 편집할 경우 변형에 해당하나요? 각 영상의 제공 기관은 다릅니다.

저작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변형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각각의 영상을 붙여 편집해 하나의 새로운 저작물이 되거나, 원저작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훼손될 경우 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활용 시 성명 표시, 출처 명시에 주의해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영상편집

52

구청 누리집에 올라오는 공지 사항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 속하는데, 지역구의 공지 사항(강남구통합도서관, 보건소 등)을 한데 모아 비상업적 용도로 지역 주민에게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웹페이지를 만들어도 되나요?

저작물을 게시하려는 사이트가 별도의 광고 수익 등을 받아 상업적이지 아니라는 전제 아래 공지 사항을 비영리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출처 표시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지역구_소식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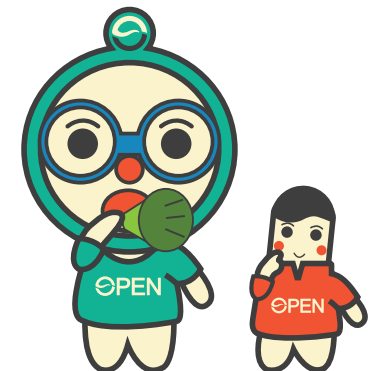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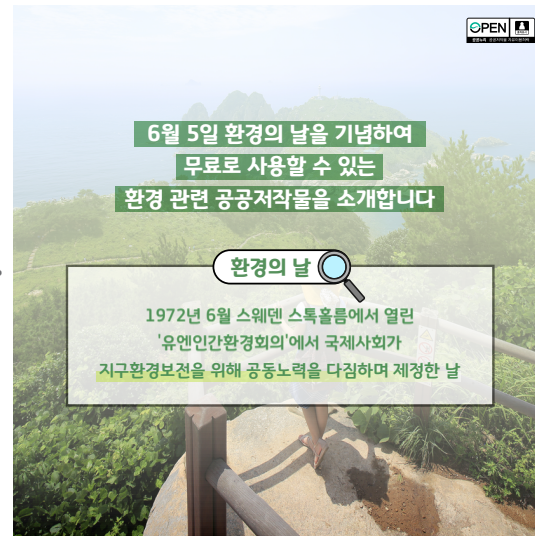
53

비영리 전시 목적으로 제4유형의 공공누리 마크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출처를 밝히고 원본 이미지를 편집 없이 그대로 출력한다면 사용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제4유형 조건인 상업적 이용금지와 변형금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용조건에 저촉될 가능성이 크다면 기관에 문의해 이용허락을 받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전시





이미지를 찾는 창작자를 위해 고화질 공공저작물을 소개합니다. 공공누리 누리집에는 산과 숲, 바다 등 대한민국 자연과 궁, 유물 등 전통문화와 현재의 일상생활을 담은 사진까지 다양한 저작물이 있습니다.

활용 안심글꼴: 경기천년제목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54

전자책 출판사입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유물 등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전자책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출처를 표시할 때 이미지별로 (ex: 00박물관/ **미술관 등) 전자책 페이지 마지막에 각 유물 이름과 출처를 표시하면 되는지, 아니면 이미지마다 그 아래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법령에 출처표시 방법에 대해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저작물의 출처가 다르다면 각각 표시해야 제3자로 하여금 실제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으므로 각각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다른 방식으로 출처를 표시해야 할 경우 저작물 보유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자책 #유물이미지_사용

55

공공기관 스크린에 상영할 비상업적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가 적용된 사진을 사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제작하고 있는 영상의 특성상 출처표시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경우 출처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저작권법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할 것입니다. 영상에 사용되는 사진저작물의 출처표시는 엔딩크레딧 등에 표시도 가능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출처표시를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별도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영상제작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56

저는 출판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 공공누리 제1유형과 제3유형이 부착된 사진자료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공공누리 누리집의 출처 표시 안내를 보면 "본 저작물은 'OOO(기관명)'에서 '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OOO(기관명), OOO(누리집 주소)'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할 경우 내용이 너무 길어 저희 누리집 UI상 이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처표시를 [공공누리 O 유형 / OO박물관]과 같이 간략한 형식으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공공누리 사이트에 안내된 출처표시 예시는 '예시'이므로 반드시 그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합니다.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시 방법, 위치 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

#누리집 #간략_출처표기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권리 및 이용 지침 제20조(출처의 명시)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저작권법 제37조 및 공공누리 이용조건에 따라 해당 공공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출처표시 가이드 예시]

- ① 출판물: 출판물의 표지 또는 내부에 출처표시(연구물은 인격권 존중을 위해 연구진의 성명 또한 함께 표시)
- ② 영상물: 엔딩 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출처 표시
- ③ 음원: 디지털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 표시
- ④ 사진: 사진 내 적절한 위치에 식별 가능한 출처 표시(사진 내에 출처표시가 곤란한 경우 사진 하단에 표시)
- ⑤ 제품: 제품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는 차원에서 표기(또는 패키지에 표기)

※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물의 특성상 출처표시로 인한 이용의 곤란함이 우려될 경우 저작자 동의 후 표기 방법, 위치 등의 조절이 가능합니다(예시: 사진에 직접 출처 표시를 할 경우 상업적 이용의 어려움 발생 등).



57

기관이 보유한 사진에 대해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때 출처표시는 기관으로 해야 하는지 원작자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은 사진의 원작자가 동의하여 개방한 경우에도 해당 사진에 원작자의 성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표시하지 않을 경우 원작자의 저작권격권인 성명표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표기관인 기관명을 표시하여야 하고, 만일 원작자의 성명이 함께 표시된 경우에는 원작자의 이름도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관과 원작자의 성명을 모두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관 #원작자 #성명표시권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

- ① 저작자는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저작물의 공표 매체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8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을 건물 외벽에 붙이는 간판(채널 혹은 스카시), 명함에 사용하게 된다면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혹시 출처표시를 생략해도 되나요?

출처표시는 저작권법상 의무 사항으로 출처표시를 임의로 생략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는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는 위치 어디에든 무방하며, 출처표시를 생략하고자 할 경우 각 저작권자에게 개별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간판 #명함



59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를 표시한다는 전제하에 상업적으로 이용 및 변형하여 2차적 저작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방송 드라마 등에서 소품으로 사진을 출력하여 사용할 경우 출처표시를 사진에 직접 하지 않고 엔딩크레딧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한가요?

소품을 촬영하여 영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결국 활용하고자 하는 것은 공공누리 제1유형을 활용한 2차적 저작물인 영상이므로 영상의 엔딩크레딧 등에 출처를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방송드라마 #소품사용 #2차적저작물

60 가족 공예 제품에 단청 무늬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출처표시는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품 패키지 디자인이 인쇄가 가능한 영역이라면 제품 패키지 디자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득이한 경우 제품 상세 설명서 등 제3자가 인지할 수 있는 그 외의 위치에 부착할 수도 있습니다.

#공예제품 #전통무늬

61 육군에서 진행하는 공모전의 포스터 부문에 참가하는데, 포스터 제작에 활용될 폰트와 사진을 공공누리를 통해 내려받고자 합니다. 사용 가능한지 여부와 이 경우 출처표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용하려는 폰트와 사진의 공공누리 유형 조건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며 이용 시 출처표시를 해야 합니다. 출처표시에 대해 법령에 따른 정해진 방식은 없으나, 제3자로 하여금 저작자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된 저작물인 포스터에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디자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생략해야 할 경우 저작물을 보유한 기관에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모전 #포스터



62 공공누리 제1유형 글꼴을 활용해 차량용 외부 스티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스티커 출력 시 가령 B4 사이즈에 중간에 떼어 붙이는 본품이 6~8개 존재하고 B4 외측 끝부분은 여백이라 치면 본품을 제외한 좌우 상단 혹은 하단의 여백에 출처표시를 하면 스티커 본품(차량에 붙는 부분)에는 출처표시가 적혀 있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추후 법적 근거를 위해 본품이 사용된 이후에도 출처표시가 남은 여백 부위를 보관하고 있으면 저작권 등에 관한 문제가 없는 게 맞나요?

출처표시 방법은 다양하며 제3자로 하여금 저작자 및 저작물을 알 수 있도록 비교적 간이하 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스티커를 제작하여 제공 시 스티커 디자인 자체에 표시되지 않을 경우 제공받은 이용자들이 직접 차에 부착하고 활용할 때 스티커 상단에 출처가 표시 되지 않으므로 결국 스티커 자체에는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되어 출처표시 의무에 위반될 우려가 있습니다. 스티커 디자인 자체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어렵다면 해당 글꼴을 보유한 기관에 문의하여 출처표시 생략에 대한 동의를 받고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스티커제작

63 한 영상 내에서 다량의 공공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출처표시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영상 출처표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엔딩크레딧 또는 자막 등으로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다량의 저작물이므로 화면마다 출처표시를 하기 어렵다면 마지막에 목록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식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의 출처표시 방식과 관련해서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된 사항은 없으나 창작자 및 저작물에 대해 제3자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얻어 생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상제작

64 퍼포먼스(행위예술) 작업에 공공누리 음원 샘플을 사용하려 합니다. 작은 전시이기 때문에 따로 출처를 표시할 수 있는 경로가 없습니다. 출처를 밝힐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음원 샘플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음원의 경우 디지털 파일 또는 파일명에 출처표시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공연에서 사용할 경우 안내서(팸플릿) 등에 출처표시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가 출처표시를 할 때에는 무료 저작물(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명, 저작자 등 제3자로 하여금 음원의 저작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특정하여 표시하면 됩니다. 또한 출처표시가 어려운 경우 해당 음원을 보유한 기관에 문의하여 동의를 받은 후 생략 가능합니다.

#공연 #음원사용



65 저작권 표시는 하단에 공통적으로 명시해도 되나요? 예를 들어 웹페이지 상단 배너에 활용할 경우 배너에 저작권 표시를 하기 어려운데, 웹페이지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표시를 사이트 하단에 해도 되나요?

저작권법 제37조 제2항은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의 성격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융통성 있는 표시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처는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므로 사이트 하단에 표시했을 경우 제3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면 문제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웹페이지 #배너제작

66 안심글꼴을 활용하여 CI를 만든 후 판매할 때 출처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CI를 제작하는 판매자는 파일명 또는 도면 하단부 등에 출처표시를 하고, CI를 받는 사람에게 출처표시 의무를 고지해야 합니다. CI를 사용하는 기관에서는 CI 화면 단 등에 출처표시를 하거나 생략하고 싶다면 저작권을 보유한 기관에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고 생략할 수 있습니다.

#CI 제작_판매

67 국립국악원에서 배포하는 국악 사운드 샘플을 이용해 음원을 발매하려 합니다. 공공누리 관련 출처를 표시해야 하는데 음반으로만 유통되는 디지털 앨범인 만큼 어디에 표시해야 할지 의문입니다. 보통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음원 출처표시 관련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나요?

출처표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음원의 경우 출처표시를 파일명에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에 직접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제품 소개란이나 소개자료에 표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국악음원 #디지털앨범



68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저작물을 인쇄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 인쇄물에 출처를 표시해야 하나요?

저작권법 제37조는 저작권이 제한되는 경우에도 출처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공누리가 적용된 공공저작물에도 마찬가지이며, 비상업적 이용이라도 출처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30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출처 명시 의무는 면제합니다. 다만 이 규정은 저작권자의 이익을 포괄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해석에 신중함이 요구되며, 혼자서 또는 폐쇄적인 사적 영역에서의 소규모적인 영세한 복제행위를 허용하는 것이므로 이 범위를 넘어 이용할 경우 출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복제사용 #사적이용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69

공공누리 누리집 안내에 따르면,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를 표시하면 상업적 용도에 맞게 가공하여 유물 사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누리집에 있는 공공누리 제1유형 유물 사진을 활용하려 합니다. 출처표시 문구 예시를 알려주세요.

출처를 표시할 때 활용 가능한 문구 예시를 안내해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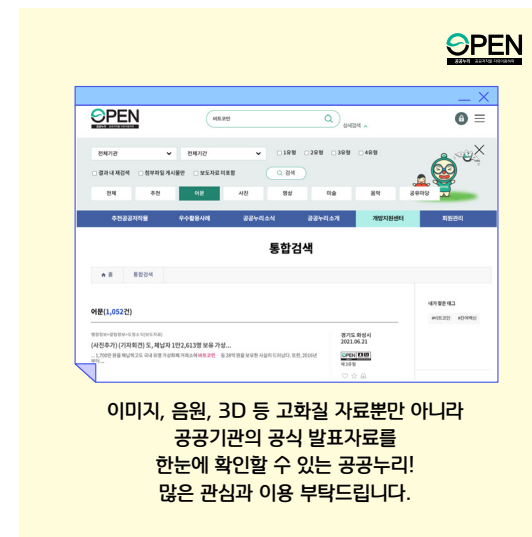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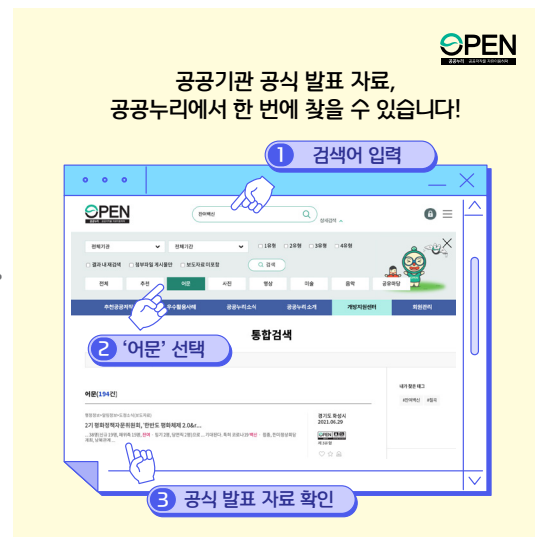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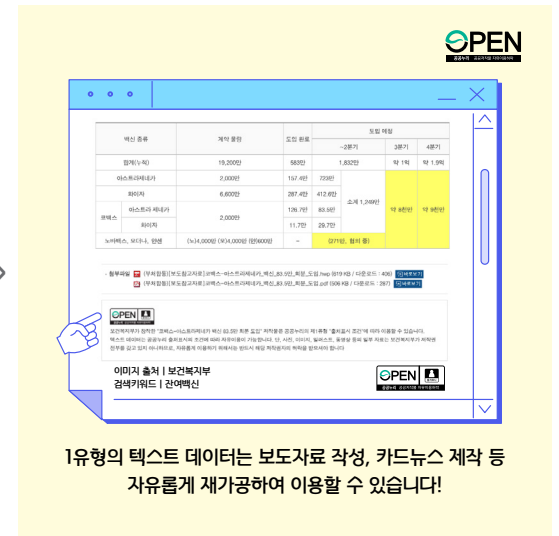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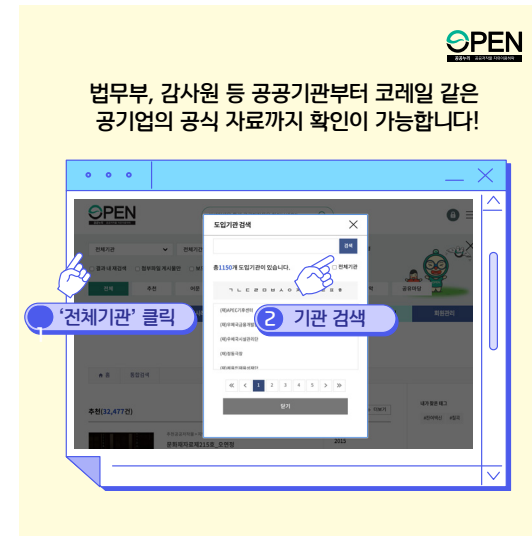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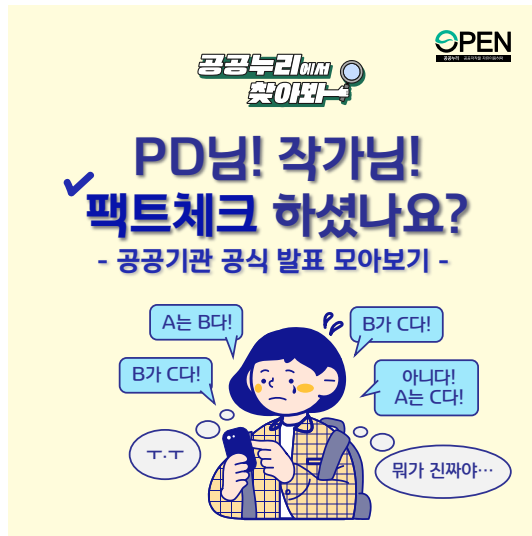
[예시1] 본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0000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1유형으로 개방한 □□□□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시2]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 □□□□, 공공누리 제1유형, 0000

[예시3] 출처 : 국립중앙박물관(<http://www.museum.go.kr>)

예시3의 방식 이용 시 인터넷 주소는 상세 페이지 주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유물사진 #출처표시_예시



자료 조사할 때 가장 어렵고 중요한 것은 '팩트 체크'입니다. 공공누리에서는 어문저작물을 통해 공공기관과 공기업의 공식 발표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활용 안심글꼴: 한수원 한돌음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70 사립대학교에 재직 중입니다. 상업적 이용의 범위에 관하여, 학교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는데 학교 누리집에 공공누리 제2유형 사진을 사용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면 별도의 허가 없이 출처표시 후 사용하면 되나요?

상업적 이용은 이용한 결과물의 상업적·비상업적 여부에 따라 나뉩니다. 공공누리 제2유형이 부착된 사진자료의 경우 활용 후 출판물 하거나 판매를 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할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나, 단순히 연구 목적이나 무료 배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의 경우 별도의 허가 없이 이용조건(출처표시 등)에 따라 이용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2유형 #학교누리집

71 상업적 이용이 금지되는 공공누리 제2유형의 사진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이 아닌 무가지 기사에 넣을 수 있나요?

무가지의 경우도 광고가 포함되는 등 상업적 활용에 해당할 수 있어 공공누리 제2유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보유 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공누리_제2유형 #무가지_게재

72 공공누리 제3유형과 제4유형은 '변경금지' 유형으로, 변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도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저작물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 저작물 자체를 보여주는 용도로만 활용 가능한 것으로 이해했으나 공공누리 제3유형의 경우 상업적 이용은 가능합니다. 2차적 저작물로 변경하지 않고도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 공공누리 제3유형인 사진을 개인이 유튜브에 수익을 창출하는 영상에 포함시키면 상업적 이용이기는 하지만 2차적 저작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요?

공공누리 제3유형은 상업적 이용이 가능합니다. 상업적 이용이란 공공저작물을 이용한 산출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제3유형이 부착된 사진자료를 활용한 후 출판하거나 판매하는 등 상업적으로 이용한다면 이는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단순히 연구 목적이나 무료 배포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비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또한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2차적 저작물이 되려면 첫째,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창작성을 가미하여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에 기초하였더라도 사소한 개변만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제3유형이 부착된 사진들을 단순히 파워포인트 또는 유튜브 영상에 탑재만 하고 내용이 나 사진에 대한 개작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즉 공공누리 제3유형인 사진을 변경 없이 개인 유튜브에 활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영상제작 #2차적 저작물



73

회사 홍보용으로 운영하는 SNS 및 블로그에 공공누리 제4유형이 적용된 군청 행사 사진을 게시하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여 이용조건에 위반하는 것인가요?

판례 중에는 기업이 자사 홍보 목적으로 저작물을 무료로 배포한 경우에도 영리 이용이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 판결).

따라서 공공누리 제2유형,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을 기업 누리집에 무료로 게시하였더라도 기업 홍보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영리적 이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회사홍보 #SNS

참조 판례



특정 작가의 트위터를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복제 출판해 무료 다운로드받게 한 출판사 대표에게 저작권법 위반이 있는지의 여부(서울남부지방법원 2013.5.9. 선고 2012고정4449판결)

도서출판사 대표가 유명 작가인 피해자의 트위터 글 총 56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자책 파일을 제작하고 자신 및 타 회사 전자책 어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이용자들이 무료로 다운로드록 제공했다. 이에 해당 작가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도서출판사 대표를 고소했다. 법원은 도서출판사 대표가 전자책 파일을 무료로 제공했다라도 그 제공행위가 어플리케이션의 홍보와 특정 사업체 광고를 위한 것이라면, 보도·비평·교육·연구 목적이거나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짧은 해설을 제시한 후 피해자의 트윗글을 쭉 예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당한 범위 안에서 일부 인용한 것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도서출판사 대표의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74

공공누리 사이트에서 공공누리 제4유형에 해당하는 글꼴은 '상업적 이용금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폰트 파일 자체의 판매를 금지한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폰트를 활용한 상업적 영상, 누리집 등 제작 자체를 금지하는 건가요?

폰트 파일 자체의 판매 금지는 물론 폰트를 활용하여 상업적 이익을 내는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폰트_활용 #상업적_활용



75

학교 시험문제를 사이트에서 유료로 판매하고 있는데, 시험문제는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해당하는 공공저작물이기 때문에 회사가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닌가요?

국립학교 기출문제의 경우 시험 출제자 등이 외부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출처표시를 하여야 하고,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사립학교 기출문제의 경우 저작권법 제24조의2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단으로 복제하여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학교_시험문제 #유료판매

참조 판례



고등학교 교사들이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습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는 경우, 그 시험문제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서울중앙지방법원2006.10.18.선고 2005가합73377판결)

[1] 고등학교 교사들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제한 시험문제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역사적인 사실이나 문학작품 등의 인문·사회학적 지식과 이해의 정도, 자연과학적인 원리나 컴퓨터 등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정도, 외국어의 해독능력 등을 묻는 것으로서, 비록 시험문제 중 일부가 교과서, 참고서, 타 학교 기출시험문제 등의 일정한 부분을 발췌하거나 변형하여 구성되었고, 시험문제가 현행 교과과정에 따른 교육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그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정형화된 내용들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위 교사들이 자신들의 교육이념에 따라 소속 학교 학생들의 학습수행 정도의 측정 및 내신성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정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남의 것을 그대로 베끼지 아니하고 출제한 시험문제의 질문의 표현이나 제시된 답안의 표현에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위 시험문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한다.(중략)

[3] 국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당해 고등학교의 기획하에 소속교사들이 업무상 작성한 것이고, 문제지에 학교 명칭만이 기재되고 출제자 표시는 되어 있지 않으며, 특정 다수 인인 위 학교의 해당 학년 학생들에게 배포되고 회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는 당해 고등학교의 명의로 공표된 단체명의저작물로서 저작권법 제9조에 의하여 그 저작권이 위 학교의 설립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고 한 사례.

[4] 사립고등학교 교사들이 출제한 교내 중간·기말 고사 시험문제가 시험지 중 일부에 해당 시험을 특정하는 시험지 표제문구로 당해 학교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출제자가 임의로 해당시험을 특정하기 위하여 표시한 것으로 저작권의 귀속주체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시험문제를 저작권법 제9조의 단체명의저작물로 볼 수 없고, 그 저작권은 출제자로 시험지에 기명된 교사들에게 귀속한다고 한 사례.



76

훈민정음 언해본의 내용을 그대로 사진이나 엽서에 삽입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시중에 나와 있는 한지라든가 벽지에 새겨져 판매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 역시 저작권 허락을 받고 만든 상업적 제품이라면 허가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학교 및 박물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언해본의 경우 이미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그 내용 자체는 자유롭게 이용가능합니다. 즉 저작권에 대한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디지털화된 고해상도 복제본을 유료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용 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용하고자 하는 언해본을 촬영하여 변형한 2차적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권자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_만료 #2차적저작물

77

'상업적 이용'의 범주와 관련하여 상업적 이익 여부와는 별개로 상업적 의도가 있었을 시 발생하는 문제인지, 의도와는 별개로 결과적으로 상업적 이익을 취하게 된다면 저촉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상업적 이용 범주는 상업적 이익이 발생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상업적 이익이란 금전적 이득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홍보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술 작품에 공공누리 제4유형의 자료를 활용하여 무료 전시 형태로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고, 회사의 홍보 효과가 발생한다면 상업적 이용으로 간주합니다.

#상업적_의도

78

출판사에서 유아교육 관련 도서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교육부에서 배포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의 내용을 일부 인용하는 경우에도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는지요?

대법원은 금전적 이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일체의 이득이 발생하는 경우 상법상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출판사는 상법상 회사에 해당하는 점, 유료 판매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고, 무료 배포의 경우 홍보 효과가 있는 점에서 상업적 이용에 해당하고, 공공누리 제4유형 이용조건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고 할지라도 교육부의 허락을 얻는다면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법 제28조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인용할 수는 있으나, 이는 분쟁 발생 시 항변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조항이며, 대법원은 영리적 이용의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의 정당한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28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출판사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저작물 사용을 위하여 저작자의 사용을 얻어 사용하거나, 공공누리 제1유형 저작물로 대체하여 이용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교육부_자료 #도서출판



79

상업적 이용에서 사업자가 포스팅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개인이라도 애드센스나 제휴 마케팅 같은 광고 배너를 블로그에 달면 안 된다는 것인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해당 저작물을 인쇄 발간하여 인쇄물에 대해 이득을 취하거나, 온라인에 올려 다운로드 시 이득 발생, 또한 상업적 누리집(쇼핑몰, 홍보 사이트 등)에 해당 저작물을 게재하면 안 됩니다. 개인적 취미나 온라인 활동을 위한 블로그에는 해당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가능하나, 운영 중인 블로그에 광고 배너가 포함된 경우 상업적 이용에 해당합니다. 해당 게시물로 인해 광고 배너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기존부터 운영해왔기에 해당이 없을 것처럼 보이나, 블로그에 있는 게시물을 읽기 위해 해당 블로그에 접속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방문자에 의한 광고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_포스팅 #블로그 #광고배너

80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의해 공공저작물은 허락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적 이용금지의 법적 근거와 상업적 이용금지로 표시된 공공저작물은 모두 제24조의2 제1항 4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요?

우선, 저작권법상 저작물 이용의 기본 원칙은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아 허락받은 이용방법 및 이용조건에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입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제2항).

다만 저작권법 제24조의2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 문언상 공공기관 등이 저작재산권을 전부 보유하지 않은 저작물은 자유이용 대상이 아니나,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저작재산권을 일부만 보유한 저작물에 대해서도 공동저작권자 등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를 얻어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저작권자 등의 저작물 이용허락이 필요하며(저작권법 제46조 제1항), 공동저작권자 등은 이용허락 시 이용방법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따라서 공공기관 등은 공동저작권자 등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변경금지 또는 상업금지 등의 이용조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법 제24조의2 제1항 제4호는 공공저작물을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없는 예외에 관한 규정으로서 공공누리 유형 조건과는 맥락을 달리합니다.

#상업적_이용금지 #법적근거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 ①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우리 것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요즘, 우리나라 전통 문양은 대한민국의 개성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입니다.
어디에 가져다 붙여도 유니크하면서도 고전적인 매력이 가득한 전통 문양을 무료로 다운로드해보세요.

활용 안심글꼴: 안동월영교체, 이순신돋움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81 공공누리 제1유형 공공저작물의 색깔을 약간 보정한 후 제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시하고 배포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나요? 변형 기준이 궁금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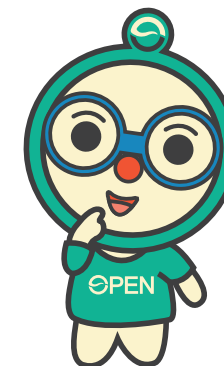
공공누리 제1유형이 적용된 공공저작물은 출처표시를 전제로 이용자가 이를 변경 및 2차적 작성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물의 본질적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저작권권(동일성유지권) 침해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_제1유형 #색보정 #동일성유지권

82 공공누리 제3유형의 변경금지에서 변형의 범위가 서체의 기울임, 자간 등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공공누리 제3유형의 변형에는 서체의 기울임, 자간 등도 포함됩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글꼴변형



83

공공누리 제3유형에 해당하는 사진을 상업적 애플리케이션에 사용하고 싶은데, 저작물의 변경금지(사진의 일부만 사용), 보정 혹은 파일명 변경도 포함되는 내용인가요?

공공누리 제3유형 저작물은 상업적 이용가능, 변경금지 조건을 전제로 이용가능합니다. 따라서 애플리케이션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진이 다른 콘텐츠의 일부로 삽입되거나, 보정 및 파일명 변경 등 개작이 된다면 이는 변경에 해당됩니다. 이미지 크기만을 조절하는 것도 그 정도에 따라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_제3유형 #크롭트 #보정 #파일명_변경

참조 법령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지침 제21조(본질적 내용 등의 변경금지)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저작물을 변경할 경우 저작권적권을 침해할 수 있는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 또는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84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누리 제4유형이 적용된 교육자료(ppt)를 받아 이를 회사 교육용 자료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교육자료 내용이 방대해서 일부 슬라이드는 삭제하려고 하는데 변형에 해당하나요?

공공누리 제3유형 또는 제4유형이 저작물의 변경을 금지하는 취지는 저작물의 변형에 따라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발췌 또는 변형 이용하여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정도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발췌 이용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한편, 음원의 일부만을 발췌하여 이용한 사안에서는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등에 추가, 삭제, 절단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갖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따라서 ppt 슬라이드를 일부 발췌 이용하는 것이 금지되는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원저작물의 내용을 왜곡하여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분쟁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발췌 사용으로 인하여 원저작물의 주요 내용이 왜곡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내용삭제_사용 #동일성유지권

85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사진을 영상 제작에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조건의 변경 금지의 설명 중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라는 표현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영상에 사진을 첨부만 해도 유형 조건에 어긋나나요?

2차적 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입니다. 이처럼 2차적 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원저작물에 기초하여야 하고, 둘째, 실질적인 개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창작성을 가미하여야 합니다. 즉 원저작물에 기초하였더라도 사소한 개변만 있는 경우에는 2차적 저작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사진들을 단순히 영상에 탑재만 하시고 내용이나 사진에 대한 개작이 없다면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사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색감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사진첨부 #2차적 저작물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5조(2차적 저작물)

-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 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② 2차적 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6

제4유형 저작물의 변경범위가 궁금합니다. 병원 평가 정보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하여 표시하면서 해당 데이터를 구축할 때 사용된 평가지표의 기준을 원저작물과 단순히 같이 보여줘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의 변경금지는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하는 것(2차적 저작물 작성)을 의미하며 병원 평가 정보 데이터를 아무런 개작 없이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변경금지 조건에 저촉되지 않을 것이나, 별도의 새로운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병원 평가 정보 데이터를 전체 내용 안에 일부 삽입하는 형태로 활용할 경우 변경금지 조건에 저촉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데이터_변경

87

공공누리 제4유형의 이용조건 중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의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요? 예를 들어, 공공저작물을 그대로 표시하되 텍스트의 내용을 요약하는 경우 2차 저작물을 작성한 것인가요?

번역, 편곡, 변형 기타의 방법으로 원저작물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곧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사용하고자 하는 공공저작물을 그대로 게재하면서 하단에 다른 추가적 내용이 삽입되어 그 전체가 일체성을 갖게 될 경우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문저작물의 경우 일부 문단만을 발췌하여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변경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다른 내용이 함께 포함된다면 변경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텍스트_요약

88

환경부에서 제작한 공공누리 제4유형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ppt 교육자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일부를 캡처해서 사용하는 것도 변경금지 조건에 어긋나나요?

단순히 ppt에 그대로 탑재만 하고 내용에 대한 개작이 없다면 사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변형이 있는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합니다. 또한 교육 목적 ppt라고 할지라도 상업상 회사가 사용하는 경우, 강의를 지급받는 경우, SNS나 유튜브 등에 게재하며 광고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홍보 목적으로 무료 강의를 하는 경우 등 일체의 유·무형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4유형 저작물 이용조건에 위배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해당 저작권자(기관)에게 개별 허락을 받아 이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일부_사용

89

공공누리 제4유형 저작물은 개인이 운영하는 SNS(블로그나 인스타그램 등)에 업로드하기 위한 카드뉴스 제작에 사용할 수 없는 건가요? 변형하지 않고 문장 그대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공공누리 제4유형인 저작물의 일부를 그대로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문장 그대로 이용하더라도 카드뉴스에 저작물 일부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제작할 경우 공공누리 제4유형 변경금지 조건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이 운영하는 SNS에 광고 배너 등이 붙는다면 상업적 이용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또한 주의하여야 합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개인SNS #카드뉴스

90

공공누리 제4유형 표시가 되어 있는 저작물의 표지에 발행 기관의 허락을 구한 후 다른 기관 또는 이름을 추가하여 재발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나머지 부분의 변경은 없습니다.

예) 표지 하단 표시

기존: ○○부, ○○대학교

변경: ○○부, ○○대학교, ○○○센터

공공누리 제4유형이 부착된 저작물은 비상업적 이용금지와 변경금지를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표지에 다른 기관명을 추가하는 부분과 관련하여 저작자로부터 사전 허락을 받을 경우 제4유형에도 불구하고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재발간을 통해 홍보 또는 수익이 창출될 가능성이 크다면 비상업적 이용조건에 위반될 가능성도 높으니 이 점 미리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_제4유형 #기관이름_삽입



91

제가 만약 <단원풍속도첩>의 그림(디지털) 속 인물의 일부를 오려내거나 그림 속 인물 구도는 그대로 둔 채 제 그림체로 바꾸어 애니메이션 장면에 활용한다면 공공누리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건가요? 학교 작품과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모전 등에 출품해도 가능한 것인지요? 변경금지가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공공누리 제3유형에서 변경을 금지하는 것은 저작물의 변형에 따라 원작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즉 변경금지 조건은 저작물을 발췌 또는 변형 이용하여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 정도의 변경에 이르지 않는 발췌 이용의 경우는 허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를 저작물에 대한 원작자의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가합85566 판결). 사용 조건의 변경금지 설명 중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 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진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색채 등을 수정하고자 한다면 이는 변경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락을 받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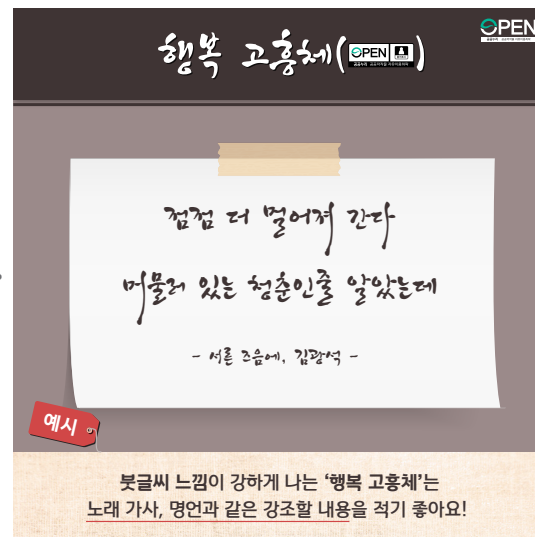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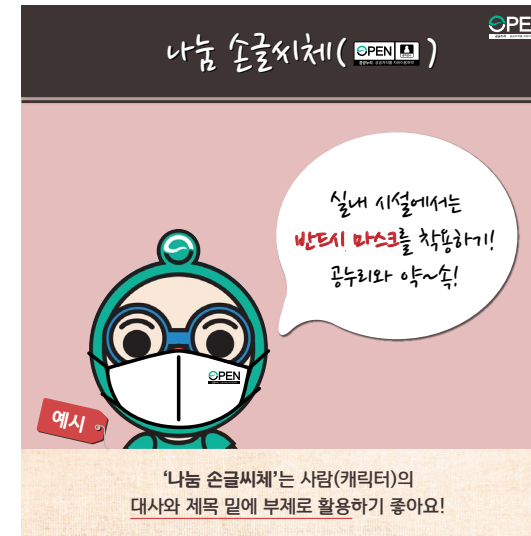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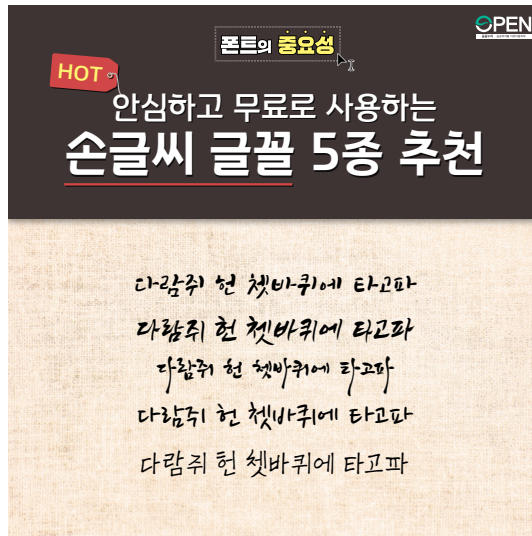
#디지털화 #애니메이션

92

공공누리 자료 중 일부 문장을 발췌하여 만든 '대본문장 + 음성녹음'을 인공지능에 적합하게 데이터로 만드는 것(인공지능 모델링이라고 표현함)이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는지요?

일부 문장을 그대로 발췌하여 데이터로 만드는 것은 2차적 저작물 작성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복제로 볼 가능성이 높으나 문어체에서 구어체로 변경, 독특한 성우의 억양 등이 포함될 경우 2차적 저작물 작성 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음성데이터_변환 #2차적 저작물



공공누리 하면 안심글꼴이 떠오른다고요? 공공누리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글꼴이 무려 160여 종이나 있습니다. 고딕부터 명조, 손글씨체까지 다양한 디자인의 글꼴을 마음껏 활용해보세요.

활용 안심글꼴: 한수원 한돋움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3

공공누리에 명시된 이용조건을 무시하고 사용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이용자가 공공누리에 따른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의 장은 이용자에게 이용조건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거나 공공저작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등은 이용자의 이용조건 위반으로 저작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 침해의 정지 등 청구, 손해배상의 청구, 명예회복 등의 청구, 형사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이용조건_위반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1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94

기관에서 책자를 무료로 배포하면서 민간에서 다시 출판하여 배포하기도 하는데, 출처가 기관명으로 되어 있지 않고 출판사로 표시되어 배포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무료로 배포되는 저작물, 즉 공공누리 제1유형부터 제4유형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출처표시는 이용자의 의무입니다.

저작권법 제37조 제1항은 출처표시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저작권법 제138조 제2호에 의거하여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출판사에 기관명으로 출처를 표시할 것을 요청하되 이행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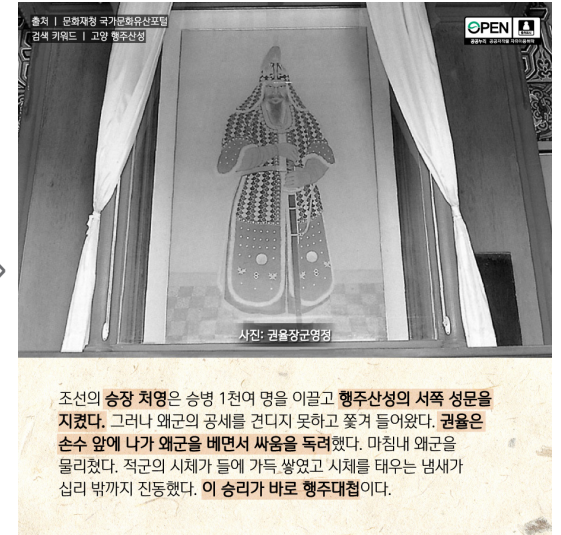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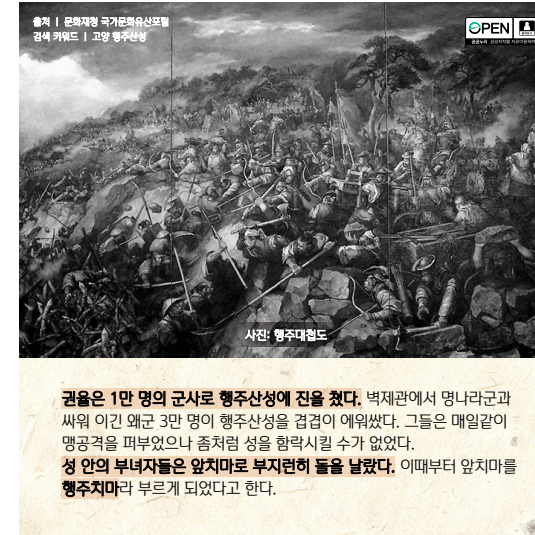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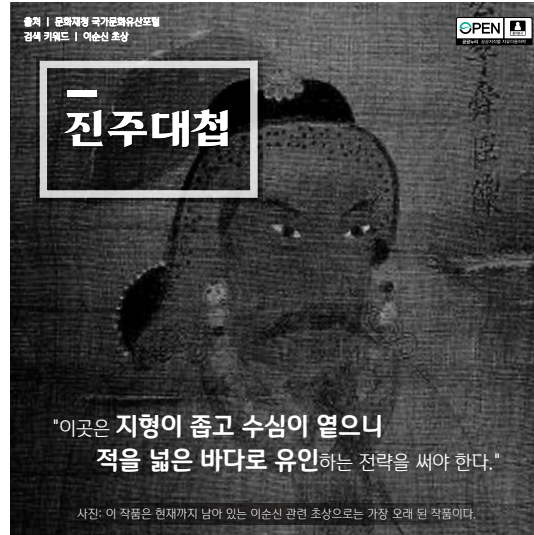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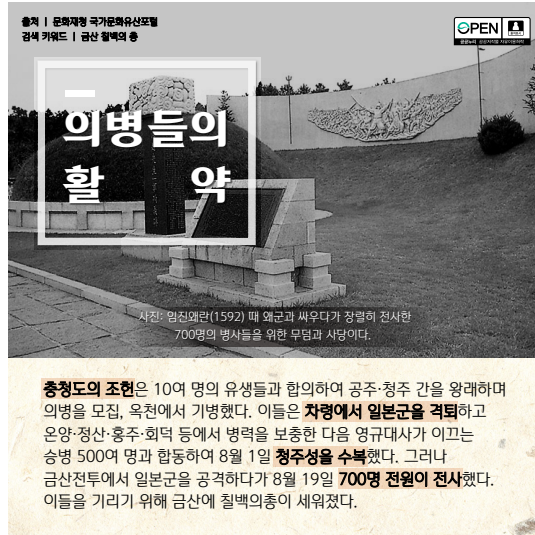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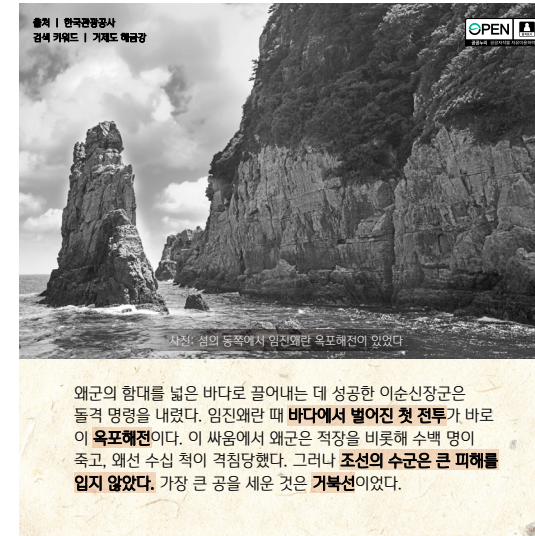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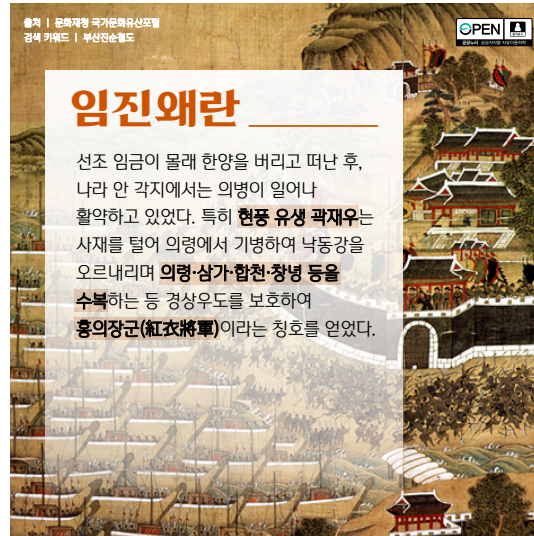
#출처_표시 #출판물_규제

참조 판례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 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출처표시의 방법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저술의 성격 내지 학문 분야에 따라 요구되는 출처표시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출처의 표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저작권법 제37조 참조).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에는 외국 문헌을 출처로 표시하여야 하고,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방식에 의하여 외국 문헌을 원출처로, 번역물을 2차 출처로 표시하여야 한다.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고, 공저가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자신의 집필 부분을 넘어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한다.



공공누리에는 문화재와 유물 등 역사와 전통을 만날 수 있는 자료가 가득합니다. 공공누리와 해당 기관의 누리집을 통해 공공누리 마크가 붙어 있는 저작물을 확인해보세요. 교육자료로도 유용합니다.

활용 안심글꼴: 62570체, 포천 오성과 한음체
안심글꼴은 공공누리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95

책 표지, 영화 포스터 등의 이미지를 도서 정보 제공이나 영화 상영회 개최 등을 위한 인쇄물이나 인터넷에 정보로 제공할 경우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고 이용하여야 하는지, 이용이 가능하다면 사용 이미지 크기가 제한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책의 표지 및 영화 포스터의 경우 이미지, 어문저작물 등 저작권뿐 아니라 초상권, 상표권 등 다양한 권리 관계가 얹혀 있으므로 권리자의 이용 허락을 받고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참고로 저작권법은 저작권재산권 제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고(저작권법 제23조부터 제38조 참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나 보다 안전한 저작물 이용을 위해서는 이용범위의 확인 및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권고드립니다.

또한 이용이 가능한 경우 법적으로 사용 이미지 크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므로 이용크기 및 이용조건에 관하여도 저작권자와 상의하여 이용허락을 받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책표지 #영화포스터 #행사활용 #저작권재산권

96

영화나 드라마 등의 클립 영상을 교육자료에 포함시킬 경우 저작권법상 문제가 없나요?

내부 교육용으로 제작하여 사용한 자료의 경우 큰 문제가 없지만 불특정 다수를 위한 배포용 자료라면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영화 영상 중 3분 정도를 무단 이용한 경우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사례가 있는 반면, 교육 목적인 경우 저작권법 제28조에 의거해 공정 관행에 따른 인용으로 인정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용 사실만으로 침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외부 배포용 자료로 이용된 영상물의 길이가 짧지 않다면 방송사나 제작사 등 저작권이 귀속된 주체에 문의 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화 #드라마 #교육자료

참조 판례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가합18479 판결)

방송사의 오락프로그램에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영화의 일부 장면을 약 3분간 인용하여 방송한 사안에서, 그 목적이 시청자들에게 정보와 재미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인용의 성격은 상업적·영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구 저작권법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정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97

도서관 이용자가 스스로 자료를 복사, 스캔한 경우 문제가 없나요?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한정된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이용자가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를 이용하여 스스로 저작물을 복사, 스캔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31조 제1항 제1호는 이용자가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복제를 요청하였을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직원의 감독하에 이용자가 직접 복사하더라도 제31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복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도서관에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개인 기기를 활용한 복제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복제물을 사적으로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다수에게 배포 또는 온라인으로 전송하였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도서관_이용 #자료스캔

참조 법령



저작권법 제31조(도서관에서의 복제 등)

- ①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문서·기록 그 밖의 자료(이하 “도서등”이라 한다)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해당 시설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도서관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서관등에 보관된 도서등(제1호의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해당 도서관등이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1.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명당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등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 ②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시에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는 그 도서관등에서 보관하고 있거나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은 그 도서등의 부수를 초과할 수 없다.
- ③ 도서관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용자가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보관된 도서등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다. 다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그 발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 도서관등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 및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등의 복제의 경우에 그 도서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다.
- ⑤ 도서관등은 제1항제1호에 따라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제3항에 따라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저작재산권자로 하는 도서등(그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으로 발행된 도서등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제5항의 보상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는 제25조제7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도서등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하거나 전송하는 경우에 도서관등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방지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⑧ 「도서관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하여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다.



98

저작물 내용 중 '인용'은 허용되는 범위가 보통 어느 정도인지의 여부와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할 경우는 그 분량에 상관없이 인용 근거만 정확하게 기술하면 허용되나요? 학술적 연구를 제외한 저작물의 경우는 어떠한가요?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인 저작권을 부여하되 일정한 사유가 충족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감안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3조 혹은 제36조). 따라서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에 속하는 경우 저작권법상 각 조건을 준수하여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학술적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이용범위는 비교적 넓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내용이나 저작권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의 이용은 불가하며, 저작물을 자유 이용(예시: 연구보고서에 인용)하는 경우에도 그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저작권법 제37조 등 참조).

#학술연구 #인용범위

참조 판례



구 저작권법상 공표된 저작물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및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인용의 경우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2도10786 판결)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가의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비영리적인 이용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등,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폐해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 하는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한다.



99

본인이 만든 영상 중간에 다른 사람이 만든 영상을 허락받지 않고 10초 내외로 짧게 편집하여 삽입한 후 출처표시 없이 유튜브에 상업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게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인가요?

타인의 영상을 활용하여 삽입한 분량에 따라 침해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나 허락 없이 타인의 영상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이 가능한 타인의 저작물이더라도 해당 영상 하단에 출처를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상편집 #유튜브_사용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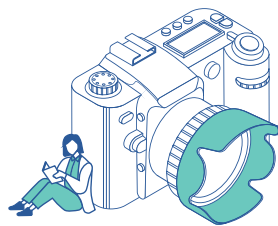
업장에서 사용할 용도로 7080 가수 이미지를 활용하여 포스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만약 상업적 용도에 해당하여 가수들의 이미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통상적으로 가수의 앨범 재킷 사진을 편집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별도로 앨범 창작자와 협의를 거쳐야 사용이 가능한지, 저작권에 대한 유효기간과 상업적 용도로 사용 가능한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가수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초상권 침해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가수 본인 또는 기획사 등을 통해 허락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색된 가수의 이미지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사진 자체의 저작권 침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사진저작물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작가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후 70년입니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가수의 앨범 재킷을 이용하는 경우 재킷 이미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면 미술 저작물에 해당되므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이 경우도 가수의 초상이 포함되어 있다면 저작권과 별도로 초상권(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가수_사진 #앨범재킷 #초상권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 사례



사진과 서체, 어문과 3D 저작물까지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제 품이나 서비스로 연결한 기업의 사례를 모았습니다. 공공누리 는 공공저작물 활용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합니다.

❶ 에쉬	158
❷ 락돈	159
❸ 뷰티드앤코	160
❹ 캬버	161
❺ 맘모식스	162
❻ 나인투스	163
❼ 청세	164
❽ 뷰티메이커스	165
❾ 얼리어답터	166
❿ M.O.P.	167

안심글꼴과 전통 문양을 활용해 패션 제품과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콘텐츠 개발

에쉬

티니타이거라는 브랜드로 한국적인 콘텐츠를 활용해 패션 관련 제품을 제작했다. K-컬처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상황에서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공공저작물로 개발된 한글 서체와 전통 문양을 조합한 패션 상품을 개발했다. 다양한 한글 서체를 홍보하고 패션과 연결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 기관에서 개발한 안심서체를 활용한 VR 전시회〈한글, 패션의 발견展〉도 개최했다.



문화 포털의 전통 문양을 활용해 한복 모티브의 상의에 자수를 넣었다.



안심글꼴 '제주명조체'를 이용해 갓의 활자를 갓 이미지와 함께 프린트한 티셔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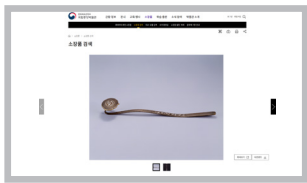
공공저작물을 활용해 한국의 문화유산을 체험하는 오감 체험 키트 제작

라돈

토이와 DIY 키트를 제작하는 라돈은 기관의 어문저작물과 사진저작물을 참조해 고종한 문화 유산 제품 5종을 기획했다. 안심글꼴과 문화재 사진, 전통 문양 등을 활용해 제작한 한지, 토판 염전, 궁중 효자손, 향갑, 타래실 등의 제품은 사용자가 문화유산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유제 은입사 여의를 참고해 제작한 궁중 효자손. 내부 설명서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클래식, 경기천년제목 등 안심글꼴을 사용했다.



전라남도 어문저작물을 참조해 토판염을 직접 생산하는 체험 키트를 제작했다.



- 2018년 사업자 등록, 경기콘텐츠진흥원 디자인 제품화지원 사업 대상
- 2019년 중소기업부 창업성장 과제 협약
- 2020년 법인 전환, 해외 B2B와 자사 물들 통한 매출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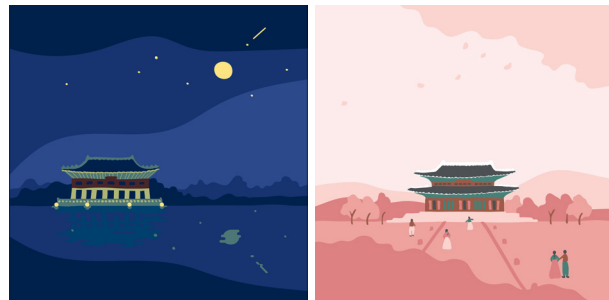


- 2015년 RADON 설립
-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메이커스리그 우수상, 창의인재 선정
- 2018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창업프로젝트 지원사 선정
- 2019년 SAI 프로젝트 선정,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오프라인 매장 운영

전통 문양 디자인 저작물을 활용해 손수건 제작

뷰티드앤코

친환경 여성용품 브랜드 더뷰티드를 운영하고 있는 뷰티드앤코는 전통 문양, 단청, 고궁 이미지 등을 활용해 손수건을 제작했다. 또한 안심글꼴을 패키지 디자인과 웹 기술서, 온라인 홍보 배너에 사용했다.



aT가 개방한 경복궁 사진과
안심글꼴 '완도희망체'를
손수건 제작에 사용했다.

공공누리의 밀양교동손씨
고가 이미지를 차용해
일러스트화했다.



- 2019년 친환경 여성용품 브랜드 더뷰티드 론칭
- 더뷰티드 비오셀 커버 생리대로 서울 어워드 우수상품에 선정
- 2021년 손수건 브랜드 청와 론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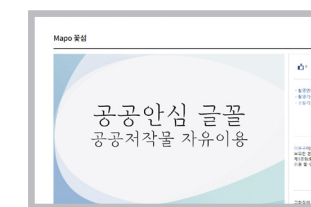
관광지를 담은 사진저작물로 여행 지도 콘텐츠 개발

캠버

캠핑카 올인원 패키지 여행 상품을 판매하는 캠버는 캠핑용품과 함께 서비스하는 캠핑 여행 지도 키트(강원도 지도와 카드형 안내서)에 공공저작물인 강원도의 관광 명소 사진 이미지와 안심글꼴을 사용했다. 지도에는 'Mapo 꽃섬체'와 'KoPub World 바탕체', '나눔스퀘어'와 '나눔고딕' 서체를 사용했고 소양강 치녀 동상 등 지역 내 관광지 사진을 사용해 안내용 카드를 제작했다.



공공저작물을 활용한 캠핑 여행 지도 키트



'Mapo 꽃섬체' 등 안심글꼴을 지도
제작 시 서체로 활용했다.



한국관광공사의 강원
지역 관광 사진과
안심글꼴을 사용하여
가볼 만한 곳을 소개하는
카드형 안내서를
제작했다.



- 2019년 주식회사 캠버 설립
- 2020년 한국관광공사 액셀러레이팅 스타트업 선정
- 캠핑 여행 전용 앱을 론칭해 캠핑카 등 공유 서비스를 연결하는 여행 상품 판매
- 2021년 주식회사 캠버렌트카 설립

전통 문양과 건축물의 사진 이미지를 2차 저작물로 만들어 VR 리소스로 사용

맘모시스

VR 메타버스 게임의 글로벌 서비스를 하는 기업 맘모시스는 전통 문양과 서울의 건축물 및 문화재를 담은 사진저작물, 안심글꼴 등을 사용해 대한민국의 도시와 관광지를 가상공간에 구현하고 게임 형태로 즐길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 '갤럭시티'를 출시했다. 그 첫 테마인 '서울' 편에는 N서울타워, 광장시장 등의 사진저작물을 모델링해 사용했다.



광장시장과 N서울타워 등 서울의 유명 건축물과 관광지를 담은 사진저작물을 기반으로 3D 화면을 구현했다.

전통 문양 저작물을 활용해 경복궁의 외관 텍스처 이미지를 제작했다.

나인투스

주요 도시 사진저작물과 안심글꼴을 이용, 기능성 깔창과 건기 관련 콘텐츠 제작

나인투스의 브랜드 워킹마스터(Walking Master)는 고객의 발을 분석·체크해 풋 데이터에 맞는 기능성 신발 및 깔창을 매칭하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제주, 전주, 부산, 평창 등 주요 도시의 관광 명소 사진을 일러스트화해 프린트한 기능성 깔창을 제작했고, 지역 관광 명소 사진과 안심글꼴을 활용해 깔창 제품과 연계한 돌레길 콘텐츠를 소식지로 발행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부산 송도해수욕장 사진을 일러스트화한 후 그 이미지를 기능성 깔창에 넣었다.



한국관광공사의 전주향교와 문화재청의 전주 풍패지관 사진 등 지역을 담은 사진 공공저작물을 이용하고 '제주한라산체'를 활용해 전주의 걷기 코스를 담은 소식지를 발행했다.



- 2015년 1월 설립
- 2018년 소셜 VR 메타버스 서비스 '갤럭시티'를 120개국 동시 출시
- 2020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지원 프로그램 TIPS 선정
- 2021년 카카오페이사로 편입



- 2017년 (주)나인투스 설립
- 2018년 카카오페이사와 올리브영 입점 및 국내 대형 쇼핑몰과 백화점 입점, 스위스 제네바 국제발명전시회 금상·특별상과 실리콘밸리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
- 2019년 워킹마스터클럽 자사 물 오픈과 온라인 발 건강 체크 서비스 론칭

안심글꼴을 활용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고 광고 영상 이미지에도 활용

청세

친환경 위터클리닝 공법으로 무인 로봇 자동화 세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청세(청춘세탁)는 키오스크와 연결된 모바일 앱 개발에 안심글꼴을 활용했다. 광고 영상과 쇼핑물 내 이미지에도 이를 활용해 페이지를 디자인했다.

안심글꼴인 '나눔고딕', '나눔바른고딕', '나눔스퀘어', '스포카 한 산스' 서체로 청춘세탁의 모바일 앱과 SNS, 쇼핑물과 제품 광고 관련 콘텐츠를 제작했다.



- 2017년 (주)청세 법인 설립
- 2019년 세탁 관리 자동화 시스템 특허등록
- 2020년 무인 로봇 세탁함 시장 도입 및 24시간 영업하는 청춘세탁 전주에코점 오픈
-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 TIPS 프로그램 선정, 청춘세탁 송파직영점 오픈

동백꽃 사진을 모티브로 한 일러스트를 제품 패키지에 활용

뷰티메이커스

뷰티메이커스는 고객의 요청에 맞춰 화장품 제작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디맨드 코스메틱 제조 플랫폼이다. 부산은행에 납품한 손 소독제에 공공저작물 이미지를 활용했는데, 사진저작물인 동백나무꽃을 일러스트 이미지로 바꾸어 손 소독제 용기와 제품 상자에 삽입했다.

손 소독제 패키지와 제품 상자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사진저작물인 동백나무꽃 이미지를 그림화해 사용했다.



상자 후면과 측면의 서체를 안심글꼴인 '나눔스퀘어'를 이용해 제작했다.



- 2019년 뷰티 제조 소셜 펀딩 플랫폼 뷰티메이커스 론칭
- 화장품 펀딩을 이용해 인플루언서의 제품을 론칭하고 OEM, ODM 서비스도 운영
- 영문과 중문 앱 개발을 통한 해외 ODM 비즈니스 진행

웹 콘텐츠 제작 시스템(CMS)에 안심글꼴 적용

얼리어답터

운영 중인 인터넷 미디어의 CMS에 '제주고딕', '제주명조', 'KoPub바탕', '나눔명조', '나눔고딕', 'Tlab신영복체' 등 안심글꼴을 탑재해 글꼴을 선택해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게 했다. 안심글꼴을 사용해 온라인 스토어의 이미지와 영상도 제작했다.

공공저작물로 개방된 안심글꼴을 사이트 콘텐츠 제작 시스템에 탑재해 콘텐츠 제작 시 서체 선택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했다. 웹 페이지 본문을 CMS 시스템 안에 탑재된 '제주고딕체'를 선택해 제작했다.



공지	<input type="checkbox"/> NOTICE
비밀글	<input type="checkbox"/> 비밀글
콘텐츠 종류	<input type="radio"/> 상품 <input type="radio"/> 리뷰 <input type="radio"/> 구매가이드 <input type="radio"/> 직접입력(하단)
첨가 콘텐츠(공공누리)	<input checked="" type="checkbox"/> 제주고딕(제주특별자치도) <input type="checkbox"/> 제주명조(제주특별자치도) <input type="checkbox"/> KoPub 바탕(한국출판인회의) <input type="checkbox"/> 나눔명조(네이버) <input type="checkbox"/> 나눔고딕(네이버) <input type="checkbox"/> Tlab신영복체(한국저작권위원회)
상품코드	일경우 상품코드만 입력해주세요
링크	상품메이커가 아닐경우는 직접 입력해주세요. (오
얼리어답터 콘텐츠 코드	얼리어답터 MEDIA POST CODE를 입력해주세요. (미디어의 콘텐츠가 변경이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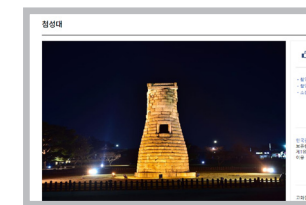
- 2006년 (주)얼리어답터 법인 설립
- 2015년 인터넷 언론사 등록
- 2017년 얼리어답터 스토어 오픈
- 2018년 네이버, 다음, 네이버 뉴스 검색 제휴 등록

M.O.P.

전통 문양 이미지를 3D 데이터로 만들어 조명기기 제작

첨단 세라믹 소재 및 부품 개발 기업인 엠오피는 꽃과 새 등 전통 문양을 3D 모델링 및 프레임으로 설계한 후 세라믹 출력해 조명 장치를 만들었다. 이 외에도 첨성대, 다보탑 등의 사진저작물을 활용해 세라믹 3D로 프린팅한 굿즈 아이템도 제작했다.

문화 포털의 전통 문양을 활용한 프레임으로 조명을 만들었다.



첨성대, 다보탑 등의 사진을 기반으로 초소형 지르코니아 LED 램프를 제작했다.



- 2017년 (주)엠오피 설립, 포스코 육성 벤처기업 선정
- 2018년 현대자동차 제로원 투자유치 및 TIPS 선정
- 2019년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 2020년 대한민국 우수특허 대상, '소부장 스타트업 100' 60개 기업 선정

100문 100답 공공저작물 어디까지 써봤나요?

공공누리 이용자 상담 및 활용 사례집

발행일

2021년 12월 초판 발행

발행처

한국문화정보원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 3/6/8층 Tel: 1670-0052

편집디자인·인쇄

디에이지
서울 강남구 언주로 151길4 4층 Tel: 02-512-9321

본 사례집은 공공누리 안심글꼴 고양덕양체, 나눔고딕, 나눔스퀘어를 활용했습니다.

본 사례집은 공공누리 누리집(www.kogl.or.kr)에서 무료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누리 누리집→개방지원센터→자료실

본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1670-00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